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회 자료집



이 자료집은 700부 제작되었습니다.
이화인 손을 바쁘게 거치는 자료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선거일정

20일 : 1차 공개유세
22일 : 정책공청회
26일 : 2차 공개유세
27~28일 : 투표일



제 2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웃음을 만드는 사람들 미진이, 선회가 만오천 이화인에게 드립니다

금기의 신화·화

신화가 바뀌어온 때가 있다.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까지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그 자유와 평등,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이상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지배와 착취의 신화가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주권들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만 것처럼

또 하나의 신화가 있다.
자유주의 이념의 요구를 수행하는 학생회,
전통의 시대와 호흡하지 못하는 학생회의 존재는
우리들의 화려한 역사를 영무처럼 되뇌이는 색은 그림자처럼
어둡고 손꼽히는 학생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자

그렇다. 아무의 하찮은 권리라도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다.
아무의 완벽한 법령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우리의 몸을 찢는 사슬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과 거대한 외세의 도움이 아니라
저항하는 현재일 뿐
저항은 언제나 현재시점에서!
투쟁으로 쟁취한 현재가 지금의 우리에게 또 다른 싸움의 대상이 된다.

동·일·성·의·환·상

세계화의 허상

IBM과 컴퓨터로 지배에서 남극까지 시장을 장악하고,
인터넷과 비디오에서 인기를 만끽하는 이사회와 경영
관리자들은 과연 세계화 사회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더욱더 위협적인 것은 권리를 보장받을 창조적-능인 사람들,
국적없이 떠도는 외국인노동자들과
법 앞에 설 자유아자도 박탈당한 돈벌이 권력없는 이들이 있지 않은가?

민족의 권리

한민족, 민족이, 모두 우리임을 조르고 권리가 대열에 뛰어들라.
우리는 한민족,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그러나, 민족과 권리가, 민족이,
부동전, 자본과 세입자가,
그리고, 여성과 남성,
그러하여,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주장해야 하는가?

EWHA로 국민 공동체의 허구를 넘겨

우리의 진정한 권리는 누가 소유하는 EWHA로만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권거한다.
강조장과 장미꽃이, 국민
우리의 주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조각과 조각가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공동체 권리가, 한리코 있는 권리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국민과 국민들의, 제도와
제도의, 학생도 아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이념을, 우리와
이념은, 우리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스스로 주장하는, 이념을, 우리와

자유·의·성·성이·시·대를·넘어·설·때·까지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라!

우리는, 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라!
우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라!
우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라!
우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라!
우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라!

손들 자유

웃음을 만드는 사람들, 미·진·이, 선·희와 함께!



금기의 신화를 깨고, 동일성의 환상을 넘어

이제 이화의 자유로움을 말하자.

자유 의 상상이 시대를 넘어설 때까지...

손들 자유



정후보 최 미 진(경제 94)

부후보 임 선 희(특교 94)

74. 서울 출생

90. 신관중 졸

93. 삼성고 졸

94. 법정대학 경제학과 입학

사회과학대학 '둘째' 활동

96. 경제학과 사회부장

대동계 민중연대실천단,

'예든이' 교육국장

민중정치실현의 대장정 학생연합회원

제 29대 총학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75. 목포 출생

91. 신반포중 졸

94. 세화여고 졸

94. 특수교육학과 입학

학회, 교육부 활동

96. 특수교육학과 교육부장

전농동 공부방 활동

'교육동이' 활동

민중정치실현의 대장정 학생연합회원

제 29대 부총학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6

사진글

우리나라 좋은나라? 96년 한 해 보기

총론

프로메테우스 이화를 꿈꾼다. 생산하는 대학만들기 / 8

1부 과정의 정치

우리는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말한다.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손들자유 / 10

8

2부 해방의 정치

주류들의 권력을 심판하라. 그리고 외쳐라
손들자유! "이의 있습니다" / 14

3부 대안의 정치

해방의 웃음, 창조와 몸짓으로 세력화 하라 / 20

4부 프로메테우스 이화를 꿈꾼다. 손들자유 / 22

35

문화

다이어트/코르셋/EWHA 티

대학문화의 먹기와 입기 바라보기 / 35

41

여성

계급없는 성을 넘어, 성없는 계급을 넘어 / 41

46

학생회

학생회 거듭나기 우리는 슈퍼학생회가 필요하다 / 46

54

도서관

이화의 심장을 1분에 70번쯤 뛰게 만들자 / 54

57

환경

환경파괴, 그 허구적 미학을 넘어 / 57

60

시시글

21세기 발전안에 이의 있습니다 / 60

65

정보

지금보다 백배는 더 좋은 세상이 옵니다.
손끝 하나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 65

공약

소수자와 함께하는 이화를 선언하자 / 26

우리의 자치활동을 보장 받으시다 / 27

공식과 비공식의 답을 허물자 / 31

Turn Off Ewha, 대동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 34

여성들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자 / 44

자기문화 만들기 / 45

물적 자원의 공유 / 49

자유로운 소통의 활성화 / 51

이화의 중심부 도서관을 개선하자 / 56

저항과 연대의 시작 / 64

- 인터뷰 학생회 건설의 산증인,
김은미선배를 찾아서 / 19
- 선거캠페인 / 53



#S 1

4월 24일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 '노개위' 발족
YS정부는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노사화합의 새시대'를 외치며 노사관계개선 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관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여전히 노사의 대립을 은폐시키려는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



#S 2

공노대 파업, 타결
94년 전지협, 95년 한국통신의 외로운 투쟁을 넘어 올해는 공공부문이 전체적으로 연대투쟁을 벌여 해고자 복직등 화해와 협력을 강조했던 정부에 의해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S 3

외국인 노동자, 전해투 명동성당 장기농성
"한국의 법은 눈이 멀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규다. 21C 새로운 노사관계를 외치는 지금도 대다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해고와 산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S 4

연대사태
민주주의 완성을 자처하는 YS에게 있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저항세력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며 민주주의를 혼드는 납득할 수 없는 위협세력으로 받아들여야 할 존재들이다.



#S 5

무장간첩 사건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
안기부법 개정 복귀, 국방비 증액, 경찰의 집회 시위에 관한 집행·해산권 강화등 획일적인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집단의 운신의 폭은 대폭 축소되었다.



#S 6

영화 사전검열 위한 판정, 그러나 국가보안법 7조 합헌판정
영화는 틀어라, 그러나 불순한 영화는 국가보안법으로 막겠다.



#S 7

대량감원, 조기퇴직, 인력재배치
대기업 "절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합니다"라는 표어에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나 불안하다.



#S 8

대기업 취업난, 수능시험 성적으로 대학 서열화
"돈 사람이 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어느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선전 문구는 진실이 아니다. 아직도 한번의 시험성적이 일생을 좌우한다.



#S 9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
언제나 이어지는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 개념도 모호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의 무한이윤창출을 위한 국가규제의 완화는 너그럽기만 하다.



#S 10

OECD가입 확정
드디어 선진국으로서의 인증을 받아냈지만, 실업과 물가불안에 시달리는 국민 개개인의 삶은 예년보다 더욱 팍팍해지고 있어 영화속에서 보는 선진국민 같지만은 않다.



#S 11

고속전철 노선 전면 수정
발전, 발전 하지만 유식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발전이 매우 빨라져 문제라고 한다. 어쨌든 발전 속에서 개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전철 사업도 전면 수정 위기에 접해있다.



#S 12

이양호 국방장관 비리사건
"다려온 돈은 한푼도 안받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하게 문민정권에서는 대통령 인근 부속실장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비리들이 존재해왔다.



#S 13

막가파
"어차피 막가는 인생인데..." 세기말적 중후군 속에 현 사회 젊은이들의 끔찍한 범죄, 그러나 진짜 막가는 것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인 국가적 폭력과 비리와 억압이 용인되는 바로 1996년 문민시대가 아닐까?

우리나라 좋은나라?

96년 한 해 보기

이젠 살아남는게 목적인 세대는 갔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시대가 왔다.

좌익, 우익, 중도... 이데올로기는 쓰레기통에 갔다.

...

“어디로 가는가, 얼마나 왔는가, 혹은 제자리인가, 거꾸로 가는가”

NEXT의 'The age of no god' 중에서



프로메테우스, 생산하는 대학

이화를 꿈꾼다 만들기



1부 과정의 정치



2부 예방의 정치



3부 대인의 정치



4부 이화여 손을 들어라

우리는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말한다

1부 과정의 정치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손들자유!

"나는 엄마, 아빠가 투쟁으로
쟁취한 세상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나에게
투쟁의 대상이다."
-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셀린느의 대사중에서

바깥은 그러하다.

4.19 의거, 5.18 광주 민주화 투
쟁, 그리고 '호헌철폐와 직선제 정
취'의 슬로건 아래 번진 87년 민
주화 투쟁에 이르기까지, 군사독
재의 역사적 반동기속에서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선배들은
민주화를 외쳤고, 이는 가장 강력
한 무기가 되어 80년대를 울려
퍼지게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90년대, 오늘의 자유를 누리는 이
유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독재
자들이 차례로 심판대에 오르는
오늘, 우리는 축복 받은 문명시대
를 산다. 서기 1996년, 타타타~
타타, 백주 대낮에 연세대 상공을
날던 헬리콥터, 그리고 그것이 부
러내는 붉은 최류역의 광복한 탄
압, 사상최대의 연행자수 기록, 언
론 비상, 전경사망, 그리고 연행중
인 여학생의 성폭행! 세기말의 역
사적 바극이 물려오고 있다.

생명과 삶을 헌신한 무수한 열사
와 전사를 압도하고 80년대의 통
자로 부상한 YS정권, 그들 스스로

가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였던 악법마
저도 신성한 공권력의 축복 아래 부
활한다. 대학교육의 재정비, 공권력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그리고 설상가상
으로 겹쳐진 북한 잠수함 좌초와 간첩토
벌작전, 남북관계경색, 바로 여기서 또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조차 억압당
하는 세상을 본다. '주어진' 위치를 거부하는
집단에게 새겨지는 온갖 불온하고 반사회적
임을 시사하는 주홍글씨와 함께.

세상은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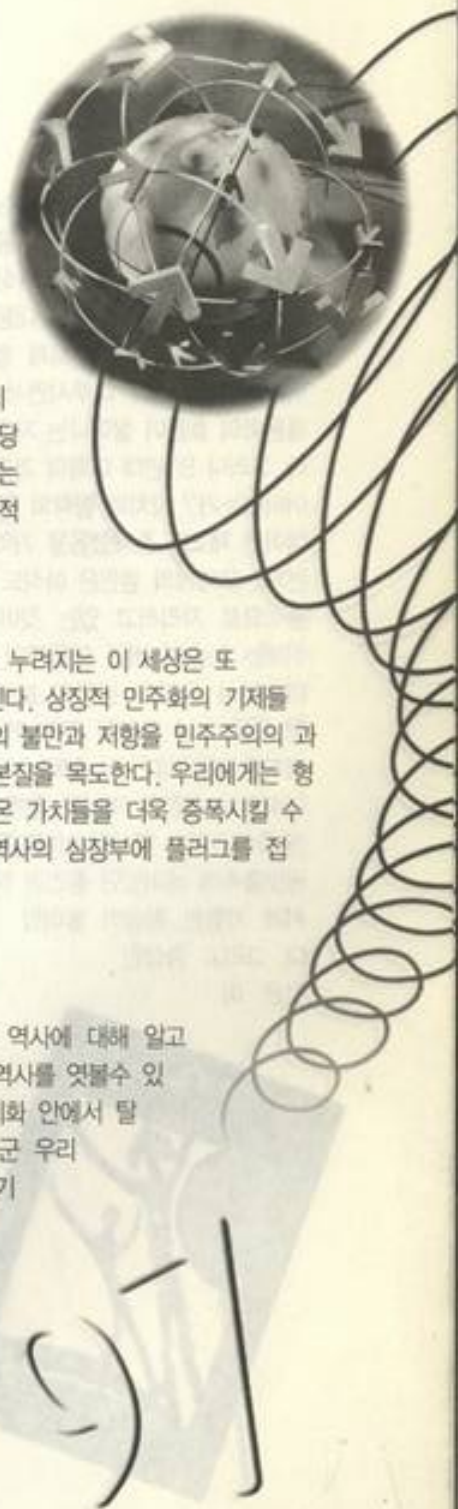
영예로운 청호들이 정취해낸 자유들이 누려지는 이 세상은 또
다시 우리에게 투쟁해야 할 이유를 남긴다. 상징적 민주화의 기제들
로써 민주화를 치환하고 계속되는 민중의 불안과 저항을 민주주의의 과
잉으로 진단하는 오늘, 90년대 개혁의 본질을 묵도한다. 우리에게는 형
식화된 민주주의에 맞서는 힘과 투쟁해온 가치들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제 저항의 역사의 심장부에 플러그를 접
속하라!

이화의 얘기를 들려줄까?

대현동에 숨어사는 전사의 후예들.

70년대 이화에서 동아리가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가? 여기서, 당시 선배들의 저항의 역사를 엿볼수 있
다. 학생 자치공간이 전무했던 당시의 이화 안에서 탈
출반과 연극패를 만들어 자치문화를 일군 우리
의 선배들, 그녀들은 전통문화를 전수받기
위해 직접 학교밖을 나서 스스로 배
우는 과정에서 이화안에 대학
문화의 뿌리를 내리게 했다.

당시 대학가를 지배했던 지
치문화의 싹과 전통에 대한 의
식의 한 울림이 이화 안에서
창조되었던 것이다.



이화에는 또 하나의 자부심이 있다. 바로 축제가 아닌 대동의 역사가 이화의 5월에 자리하고 있다. 이화인이 하나되는 대동제는 매년 영산의 인간문화제 할아버지가 직접 줄을 다루시면서 전통문화의 호흡이 살아나는 자리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화의 과거는 어떠한가? 시치와 항락의 역사, 메이퀸 제도가 존재했음을 기억하는가? 고대생의 쟁판은 아직도 그 흔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녹슬어 버린 대동제의 의미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쟁취한 자유'이다. 이 속에는 분명 이화인의 저항의 역사와 함께 영산 줄다리기로 엮어진 이화인들의 동앗줄속에 배어있던 흥건한 땀줄기와 치열한 함성이 들어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땀줄기와 함성이 우리를 억압하는 이화의 군열자장에서 더 큰 파장으로 부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현실을 보자. 우리는 학교측의 권위를 허물었다고 말한다.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이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물었다고 생각한다. 칸칸한 정수기의 물과 드랍제도, 새로 만들어진 식당, 깨끗해진 기숙사 매점, 신축 공학관, 그리고 앞으로 건공될 21세기형 신축 학생관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 속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공부할 '의무'뿐인가?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선택대로 공부할 권리가 없다. 필수교양 과목으로 선정된 영어과목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의무화되었고, 이화인이 주체가 되어야 할 학문의 자리는 학점을 매우기 위한 의무와 학칙들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평가의 기준은 어떠한가? 이화인이 주인이 되어 평가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화인중재, 전문비서 교육과정의 취업을 향한 꼬리표 달기 경쟁에 뛰어들기 이전에, 진리탐구의 장은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우리는 역사적 자치권력으로 쟁취해낸 학생회를 기억한다. 그러나 과거 투쟁의 선봉에서 시대를 선도하던 학생회는 이미 이화안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과거 이화인의 하나됨을 만들어 냈던 4.19 마라톤과 진달래 함성제는 몇몇 소수인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의 자치와 민주주의의 담지체는 불구화된 거대한 몸짓을 내뿜으며 회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쟁취해낸 투쟁의 성과들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살아간다. 이러한 이화의 텃밭 일구기는 더 나아진 현실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쟁취해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급진적인 저항과 연대의 열매 맺음을 우리는 보아왔다. 그리고 바로 이속에서 '민주주의'의 실가치가 비로소 성숙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권리들을 조심씩 내뱉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되는 저항의 역사속에서 증폭시키려 한다. 바로 이런 중단 없는 이화 가꾸기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말하려 한다. 지금까지 쟁취한 그리고 앞으로 쟁취할 자유의 과정속에서 이화의 민주주의는 무르익을 것이다. 이것의 작은 표현이 바로 손들 자유이다.

민주주의 훈련의 장을 점유하라.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의 그림을 알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의 '상상 동물 이야기'에 나오는 우로보로스의 그림이다.

우로보로스의 머리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다.

움직임의 생명이 없는 뱀은 항상 그 자리에 머리에서 꼬리를 빼내지 못한 채 자기꼬리를 물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흡사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속에서 안주하려는 이화인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 않는가.

우리는 감히 이 뱀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자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머리에서 꼬리를 빼내어 질주하는 것.

자신의 꼬리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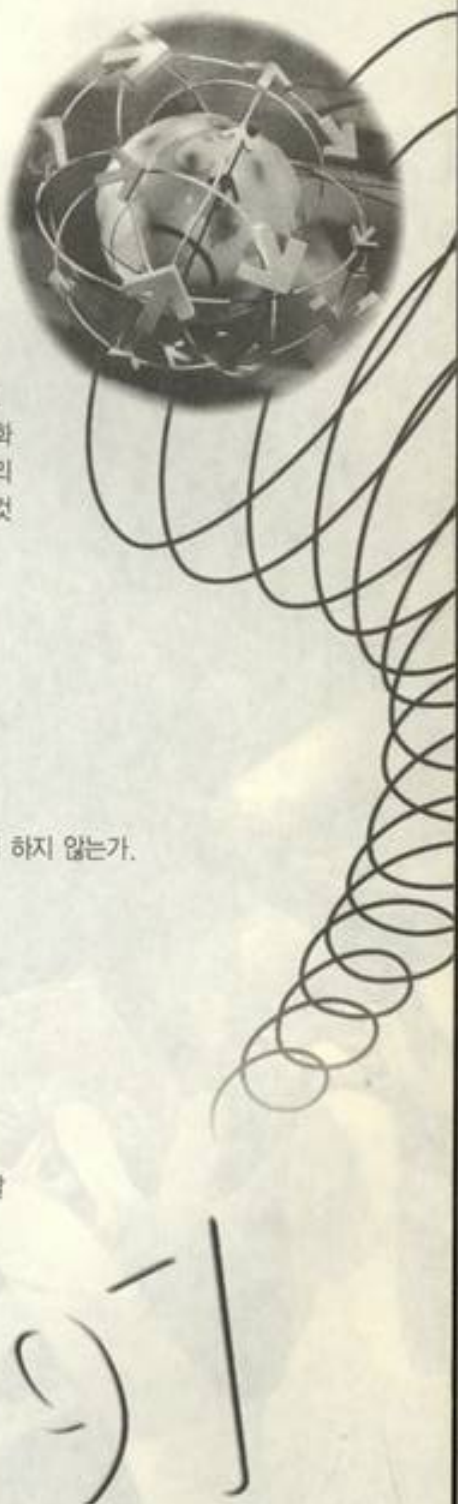
뱀에게 생명을 불어 넣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훈련이 된다.

다시 한번 질문한다. 뱀이 꼬리를 삼키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뱀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대답한다. 주어진 자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자고. 이제 우리에게 쟁취해낸 가치들이 회화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꼬리를 벗어나기 위한 질주의 시작이다. 우리 속의 응축된 불만을 구체적인 문제로 상승시키고 행동하는 속에서 우리는 주체로서 당당히 설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민주주의는 이 과정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몸짓이 가시화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서있는 대학사회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점유될 수 있을 것이다.



주류들의 권력을 심판하라! 그리고 외쳐라

2부 해방의정지

손들자유! '이의 있습니다!'

만약에 상어가 사람이라면, 지배가 인간적이라면 작은 물고기들에게 더 훌륭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학교를 세워 어릴 때부터 상어의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상어님들에게 자신의 온몸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야말로 물고기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임무임을 깨달도록 윤리와 도덕도 가르쳐 줄 것이다. 특히 상어가 작은 물고기들의 장래를 위해서 앞날의 아름다운 설계를 펼쳐 보일 때는 그 말을 믿고 순종토록 가르쳐 주겠지. 상어의 질서 속에서 반기를 드는 경향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상대하지 않으며 자기를 중에 누군가가 그런 김새를 보이면 달려가서 상어에게 일러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말아야..... 상어가 사람이라면 물론 예술도 한몫 거들겠지. 온갖 아름다운 색채를 동원하여 상어의 이빨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상어의 입과 목구멍이 얼마나 뛰놀기 좋은 들판인가를 깨우쳐 주는 그림이 그려질 거야. 또 작은 물고기들에게 참된 삶은 바로 상어의 뱃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겠지.....
- 브레히트, <상어가 사람이라면>

지배가 인간적이라면, 그리고 소외가 부분적이라면, 조금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비집고 나온 인간이된 상어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세상을 유유히 해엄치고 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다. 그 주변에는 그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 비주류들,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중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왜곡된 언론에 포섭된 대중들 등이 있고 특별히 여성이라는 성별의 작은 물고기도 존재한다. 이곳에서 인간이된 상어는 끊임없이 말한다. 보편적 인간들이 노력하는 세상,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들의 화해는 가능하다고, 그러나....

90년대,
권력의 바이러스가 작동한다!

주1) 여기서 소수자는 수적 다과(多寡)와 무관하며, 언제나 대항 세력으로 존재하며 지배권력에 문제제기한다.

상어는 예전에도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다. 상어의 권위가 날카로운 이빨에 있었다면 인간이된 상어는 좀더 정교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정교해서 바깥의 장애물처럼 눈에 보이기 보다 차라리 우리 몸을 서서히 엄습해 들어오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침투한다. 그것은 가침이나 열을 통해 징후를 남길 뿐이다. 날카로운 이빨에 비해 훨씬 중요스럽지도 않은 그래서 때로는 훌륭해 보이는 것이 바로 90년대의 권력이다!

언제부터인가 인간이된 상어의 언어는 멀티미디어, 사이버 스페이스, CF, 언론이다. 신문과 TV에서는 무한 행복보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연일 정보화 사회의 장밋빛 미래를 전도한다. 그날의 피로는 그



날에 몰자'고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공권력은 박카스 예프 한병으로 화해하자고 이야기 하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본 이 세상은 공 권력의 마녀사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연대사 태의 폭력진압과 각학교 학생회 간부들의 연 일 구속, 우리는 현실에서 발견할 수 밖에 없 다. 포장되었을 뿐인 상어의 이빨을...

그렇다면, 이화의 미래는 장미빛 인가? 명 문 이화여대라는 이름 하에, 이화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지적, 물질적 접근을 허용하도록 사회에서 부여받았다. 하 지만 이곳에서 평등한 교육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사회의 이윤창출을 위해 여성자 원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소의 기능을 하는 학 교가 있을 뿐이다. 학부제 실시를 통해, 원하 는 전공반 속에 편입되기 위한 경쟁의 몸부 림은 계속되고 여기서 낙오된 자는 원치 않

는 반에 들어 가거나 자퇴 를 결심해야 만 한다. 겉 모습만 화 려 한 이



화, 이곳에서도 인간이된 상어는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상어의 종교는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이다. ILO 이사국 선 임과 OECD 가입이라는 미명하에 거론된 노사관계, 사람들은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낯선 말에 섬뜩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 였지만... 기업 단위에서는 이미 신경영전력이 진행되고 있었 고, 정권 역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경영합리화를 핵심적인 목 표로 내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민주노총을 하위파트너화 시키 면서 이 거대한 새로운 시장개척에 착수하고 있었다.

이화로, 세계로, 미래로!!!!

이화의 대강당을 장식하고 있는 슬로건이다. 얼마전 장상총 장의 취임식에서도 다시 이 말은 강조되었다. 장상 총장은 이 화의 세계화를 향해서 국제적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 고, 세계화 시대 전문여성을 배출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우 수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화의 현실은 이 화가 말하는 '전문인'이 아니다. 단지 1,200,000원의 등록금외 비용을 전문비서 교육과정을 위 해 지급해야 하며, 이화인증제를 통해 이력서의 한 칸을 채우기 위 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을 뿐이다.

주어진 잣대로 우리를 재단하는 '대학종합평가제', 그 입구 작은 골치잡이 시작되고 일류대학을 향한 이화의 몸짓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관이 험하고 팔복동산에는 아산의 자본 이 들어오고... 그러나 뼈까번쩍한 건물들 속에 우리학교의 점

수는 올라가는데, 강의실 안은 원지 더 비좁아진 것 같다. 교수님의 얼 굴은 더 작아 보이고, 칠판의 글씨 는 가물가물, 앗, 보이는군, '영문이 화여대의 학생여러분, 일단 오십시 오,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가 능한 품목은 교수, 실험기구, 커리 컬럼 등등...

상어의 무기는 이빨이다.

그러나 인간이된 상어는 금기의 신화를 만들어 낸다.

인간이된 상어는 거미줄 같은 니 념의 체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제도와 규칙이다. 이 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성을 앞세우 고 수많은 금기와 규칙을 만들어 낸 다. '수익자 부담원칙'도 이것중 하 나이다. 교육의 합리적 재편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들을 정부가 아 니라 직접 교육을 받는 우리들과 우 리 부모님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시장경제 의 황금률이다. 또한, 각종 언론매 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green 상품들, green 취발유에서부터 콩 기름 인쇄, 광분해 용지까지, 환경 파괴의 부담은 소비자가 진다? 누 가 보아도 상어에게만 유리한 원칙 이 아닐 수 없다.

이화 안에도 우리는 권력의 질서 속에 가두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 한다. 금혼제도, 학점제도, 채물제 도, 장학금 제도, 주말에 개방되지

않는 건물, 다섯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 전산실 등... 바로 이속에 이 화는 갇혀져 있다. 그리고 이화는 끊임없이 학교발전 비용을 학생들 에게 전가시키는 등록금 인상이라 는 원칙도 만들어 내고 있다. 날로 오르는 등록금 속에서 이화의 교육 은 '권리'가 아니라 등록금을 내고 학점을 채우는 '의무'로 규정받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편집증 환자와 같은 표정으로 다가온다.

80년대 독재에 맞서 저항의 구슬을 이루었던 5.18 투쟁은 '학살자 처 벌'과 '특별법 제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서, 민주주의의 실가치는 기존 권력의 전략적 방향성 아래 흡수되고 말았다. 또한, 마치 연대 사 태를 방불케 할만큼 수많은 헬기를 동원시켰던 영화 '파업전야'를 우리 는 이제 대학로의 한복판에서 관람할 수 있음으로써, '영화 사전심의제 도 철폐'라는 이름으로 진보의 목소리를 포장시키고 있다.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매도되던 모그롬은 이제 환경친화그 롬이라는 신종무기를 통해 환경운동의 실내용 을 흡수하고 있다. 결국 모든 새로웠던 것은 권력의 편집증 앞에 무릎을 꿇는다. 과거 민중 의 투쟁으로 확보된 '민주적 기제'들이 이제 는 기존 권력의 독점 공간으로 점유 당 하고 있다.

과 거 의

기억을 쉽게 잊게 한다? 그 리고 흔적조차 기억하지 못하 게 한다? 이것이 바로 90년 대 권력의 편집증이다. 그것





은 우리로 하여금 권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고 있는가를, 그리고 그들의 화해의 제스처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강요한다. 권력의 흡입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중에는 이미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반대편에 서있기를 거부한다. 시간이 갈수록 기존의 권력과 그 권력에 불응하던 이들간의 차이는 지워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저항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차단하라!!!

크리스마스, 13일의 금요일, 그리고 또다른 D-Day,
주의사항 - 핵카를 경계하라! 컴퓨터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백신 바이러스, 아니면...

우리는 권력의 위계질서에 갇혀서 살아간다.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흡사 컴퓨터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끊임없는 백신의 개발로 저항한다고 할지라도 또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것과 같다.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은 이제 통합되어 서로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흡수되어버린 그리고 앞으로 흡수될 바이러스의 침투 앞에 백신의 개발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백신만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다, 우리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차단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생성과 창조를 구축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모든 기존의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권력의 편집적 움직임에 가로지르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제 우리, 기존의 질서와 전혀 다른 새로운 힘을 창조해 내자. 주체들의 싸움, 주체들의 몸의 움직임으로 우리의 힘을 증폭시키자.

손들 자유!, '이'의 있습니다!

당신은 손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그리고 외쳐본적이 있는가? '이의 있습니다' 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손들 자유!, '이'의 있습니다'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외쳤을 때 만약 손들 자유가 기존의 주어진 자유라면, 한번 전혀 다른 자유를 쟁취하길 꿈꾸어 보자.

명심할 것은 우리의 방식은 기존의 것과 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이미 주어진 자유들이 아닌 쟁취할 자유를 향해 저항하기, 그리고 억압적인 권력구조와 부정과 권위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해방의 정치'이다.



학생회는 어떻게 건설되었을까? 너무 당연스럽게만 느껴지는 학생회의 존재, 그러나 처음 건설이 될 때면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필요로 했다. 학생회 건설의 산증인, 당시 마지막 중앙 학도호국 단장을 지내셨던 김은미(사회 82) 선배를 만나보았다.

손들자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가지 여쭙고려 하는데요, 마지막 학도호국단장이셨다고 들었는데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학도호국단은 어떤 것이었나요?

김은미 선배 : 제가 학도호국단장을 했던 건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까지, (84년 2학기에서 85년 1학기) 그리고 임기 이후 결성된 '학생회 부활 추진 위원회' 장을 맡아서 86년 3월, 제 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치렀습니다. 당시 학도호국단은 백정희 정권시절 기존에 있었던 자율적인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를 군사체제를 모사한 체제로 개편하여 만든 것이었는데,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치기구이기 보다는 학교와 궁극적으로는 정권에 의해 학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고, 그러나 그러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대중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학도호국단이라는 틀을 맡아지면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죠. 83년 이후부터 서서히 이런 대중공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의식적으로 결합해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손들자유 : 그렇다면 굳이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학생회를 건설하고자 한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은미 선배 : 학도호국단은 체계의 구성에서부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학도호국단은 군사조직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유사시 동원가능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학생 군사조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은 전혀 자치적일 수가 없었고, 재정 자율권도 없었고 활동도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학생회 임원 선출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누구도 학생대중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게다가 학도호국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 평점 3.0을 넘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학부에서 작은 집회를 하나 열어도 상주하고 있던 사복경찰들에 곧바로 연행되곤 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던 사람치고 징계의 전력이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학우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있는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손들자유 : 그렇군요. 그러면 학생회 건설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김은미 선배 : 84년 이른바 유화국면을 맞아 학내에 상주하고 있던 사복경찰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학생자치활동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양심수의 석방, 해직교수의 복직 등이 전시기보만 한 중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때에 84년 2학기부터 서울대, 연대, 고대도 본격적으로 학생회를 건설했는데 (학원자율화 추진위원회) 우리학교내에서는 세가지 정도의 입장이 부딪히면



인터뷰

학생회 건설의 산증인 김은미(사회 82) 선배와 함께

서 건설이 보류된 상황이었어요. 그중 첫번째 입장은 학생회를 지금 당장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두번째 입장은 학생회건설보다는 사회민주화 투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세번째는 양자의 절충안으로 학생회 부활 추진위원회를 건설해서 학생회 부활 작업과 사회민주화투쟁을 병행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세번째 입장이었는데, '학생회 부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각 단장과 총학생회 소속 각 부장들이 함께 학대운영위원회를 거쳐 87년 3월 총학생회 선거를 치렀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문교부에서는 학생회 부활은 인정하되, 성적·징계전력 등의 자격요건은 그대로 유지시키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9월에 문교부에 항의시위를 갔다가 종로서에 끌려가고 했어요. 어쨌든 그해 3월이 경선을 벌였고,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건, 공개유세를 하던 광장이었습니다. 우라학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봤어요. 운동장 스탠드를 꼭 메우고 앉았으니까요.

손들자유 : 건설하실 때, 학생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김은미 선배 : 당시 학생회 안에서는 두가지 입장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하나는 학우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학생회는 대중조직이므로 대중들의 의사를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이 둘간의 조정의 문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였죠. 어쨌든 당시에는 상황이 상향되었던 만큼 정치투쟁쪽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고 총학생회는 여러 특별위원회와 투쟁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손들자유 : 마지막으로 제 29대 총학생회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후에 들었던 말씀이 있다면?

김은미 선배 :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회를 고민하는 사람들간에, 또 대중들과 서로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겠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해요. 또 학생회 건설의 발상이 유의미하다면,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군요. 항상 자족적인 학생회는 경계했으면 합니다.



해방의 웃음,

3부 대 안 의 정 치

창조의 몸짓으로 세력화 하라!

프로메테우스, 인간과 동물들을 창조하고 동물들에게 필요한 발톱과 이빨, 볼 등을 나누어 준 뒤 인간에게는 불을 주었다는 그리스 신화의 신! 그가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생명체를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이세상속에서는 창조가 필요하다. 소수의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서는 것, 이속에서 권력의 위계질서속에 억눌려 버린 우리들의 권리를 말하고 보장받을 '힘'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중심의 위계권력으로 무장된 사회속에서 여성이라는 소수의 물고기로 존재하는 우리들로 부터, 취업을 위한 대열에 서기를 강요받는 대학인, 그리고 환경과 지식, 정보, 인권의 문제 등... 주변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부위는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지점의 문제들을 서로 공유해야 하며 여기서 다차원적인 세력화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소수자의 위치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세력화를 꿈꾸자!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기 위한 자신의 몸으로부터의 반란을 꿈꾼다. 우리를 엄습하는 감기처럼 우리의 내면까지를 점유하고 있는 권력이라는 장애물을 몸밖으로 밀어내는 것, 몸을 찢는 움직임을 생성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몸안에 있는 장애물 안에서부터, 몸밖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고, 다시는 고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몸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생성과 창조를 진정으로 긍정하기이다. 권력의 지면과 주체의 의지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를 메워나가는 생성의 정치학을 꿈꾸는 과정이다. 그러한 생성의 힘이 가장 근본적인 권력인 것이다.

저항의 상상을 향해, 웃음을 웃어라!

우리는 이제 우리를 달가와하지 않는 위계사회와 남성사회를 향한 질주가 필요하다.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세상을 향한 저항의 몸짓이 필요하다. 그 첫 시작으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확장된 자아를 만들고 검색하라, 그리고 웃음을 웃자! 웃음은 여러가지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다. 웃음은 자신의 의사의 표현이며 저항과 전복의 기쁨이다. 모



X A T E H T

든 것을 긍정하고 부정하는, 모든 것을 매장시키고 소생시키는 웃음은 가장 큰 자신감의 표현이다. 화를 내고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한 수동적인 자기 비판이라면 웃음은 적극적으로 나의 상상력을 해방시키고 창조하는 매개가 된다. 우리는 바로 이 웃음을 통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권력을 창조할 수 있다.

프로메테우스, 이화를 꿈꾼다.

4부 손 들 자 유

생산하는 대학만들기!



1. 이화대학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1) 80년대 이화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었을까?

▶1983년, 4월 7일, 이대생 유인물 사건 '민주화 대투쟁을 위한 선언' '이화학원 민주화에 부처 - 우리의 이화는 어디로'를 살포하며 시위, '졸업장원제 폐지하라', '상대평가제 거부한다'

▶1984년, 11월 4일, '여대생 추행사건'

학생의 날 부활 행사에 참석하려다 서대문 경찰서에 연행된 여학생 4명, 사복형사와 전경에 의해 상의를 벗기운 상태에서 쌀 부대를 감은 각목으로 상체를 구타당함.

▶1984년, 11월 16일, 14개 대학 여학생회 연합 '여대생 추행사건 보고대회' 개최.

'9월 4일 방일대회 시위에 참가했다가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된 여학생 3명은 수명의 전경이 보는 앞에서 신체검사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옷을 벗을 것을 강요당함'

가시적인 폭력과 물리적인 힘이 들끓었던 80년대, 이속에서 독재정권에 저항하려는 저항의 움직임은 거세었고, 이화대학 또한 저항 이데올로기의 구심지로 서있었다. 당시 대학의 진보진영과 학우들과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일반 민중들 또한 저항이데올로기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속에서 학생사회의 방향성은 자신의 변화에 대한

vision과 기존 주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역방향의 변화를 스스로 구현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서의 대학은 학우들의 집중된 동의가 '권력'으로 표현되던 장이었으며 동시에 그 '구조'도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함으로써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2) 그렇다면, 90년대의 대학의 모습은?

1996년, 8월 12일, 연세대에서 시작된 한총련 대학생들의 폭력시위 사태는 20일 경찰에 의해 9일 만에 강제진압될 때까지 5천 7백 15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연행자수를 기록하였다.

1996년 10월 18일 연세대 한총련 시위에 참여했다



연행된 여학생의 최초 법정 진술이 공개된.

'지난 8월 20일 오전 연세대 종합관 5층에 있다가 한줄로 늘어선 앞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계단을 통해 연행될 때 양쪽에 늘어선 전경들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한 총련 사태 직후 집계된 연행자 중 성추행 41건, 성폭언 36건....

90년대 '개혁'이라는 이데올로기속에서, 시대를 획화화시킨 역사적 비극은 잠시 눈을 돌리고 곧 잊혀버리는 일상의 대화가 되어 버렸다. 과거 시대를 선도해왔던 대학사회는 그 구심을 잃고 점차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속에서 저항 이데올로기는 더이상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분출하는 효율적인 담론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어느 순간부터 학생회라는 구조가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향성 자체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앞의 역사들이 증명하듯이 학생회를 통해 구성되었던 자치 권력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해당시기 사회와 학원을 반영하는 속에서, 학우대중들의 상황과 의지를 반영해 왔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현재 대학이 저항의 구심을 잃고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학우들의 상황과 의지가 일정한 경향성을 상실할 만큼 개개인으로 분화되어 있는 현실과 언제나 고립과 독점의 양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중으로부터 소통없는 학생회이다. 당신은 아직도 자치와 자율을 꿈꾸는가? 학생회가 다양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대학사

회를 배화하는 우리 모두는 '거듭나기'를 시도해야 한다.



2. 이화대학 깨부수기.

학교, 학생, 교수는 이화의 삼주체?

우리는 흔히 학교를 운영하는 삼주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허구다. 개인과 권력의 불평등한 수직구조일 뿐이다. 우리가 개인의 자격으로 이화대학이라는 곳에 입학할 때부터 학교라는 것은 하나의 제도화된 거대한 '권력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이는 '대학안내'라는 책자를 넘겨 받으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책자속에서 우리는 학교로부터 수많은 의무들과 규칙들을 강요당하게 된다. 성적제도, 금혼제도, 채물제도 등.....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의무'들 속에서 불만을 느낄 것이고 문제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언제나 권력과 개인의 통로는 불평등한 수직구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힘으로 기존의 권력을 유지, 온존



3. 세이호행선총 HQS9대 총학생회에서는 !!거듭나기!! !!행위!! 하합니다!!

하려 한다. 문제제기하는 개인들을 끊임없이 제어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현상유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큰 권력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거대한 권력이라는 빅부리대 앞에서 문제제기하는 개인들은 그대로 통합되고, 그들의 구미 대로 제단당하고, 흡수되고, 무기력해지고 만다. 결국 우리는 학교와의 관계에서 개인으로만 존재할 때는 '의무'와 '복종'을 강요당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부여받은 권리, 즉 학교다닐 권리마저 빼앗길 위협에 언제나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주체'로 설 수 있는 세력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권력이 권력으로서 독점화되는 것을 막고, 개인이 계속해서 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로 서서 세력화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개인과 권력간의 변증법이다.

이제, 맹창하는 권력과 분화되어 버린 개인간의 변증법을 말하자!

다양한 지점에서의 권력형성/ 비정치적 정치화

90년대 대학사회의 모습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고, 우리의 관심 또한 다양한 지점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속에서 우리가 단지 개인으로 존재할 때의 문제제기는 대부분 '소수자'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어 지고 만다. 이런 소수자들의 문제를 지배권력은 끊임없이 금기의 사항으로 낙인찍고, 동일성의 환상속에 포섭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기존권력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속에서 소수자를 넘어 '정치세력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지점에서의 '다차원적인 권력형성'이다. 이런 다양한 지점들의 문제는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균열지점을 일으키고 권력의 누수현상을 낳고 있는 '비정치화'된 영역을 의미한다.

이런 비정치화된 다양한 지점속으로 공동된 이해 기반을 가진 주체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이 주체들이 자유롭게 문제제기하고 소통하고 기존의 것들에 대해 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정치영역의 정치화'이다.



주1) 여기서 소수자란 정치적 소수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양적인 개념의 소수의 의미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견해들이 정치화되지 못한 경우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립니다!!

소수자와 함께 하는 이화를 선언하다!!

소수를 배제하는 이화에서, 이제 동일성의 환상을 넘어서자!!!

1. 소외받는 특례입학 장애인에 관하여

- 공존을 위한 환경 모색으로 등하교시 교통수단 마련,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세면대 설치

2. 소외받는 자대, 공대인

- 금화터널을 직진하는 일반버스가 금란여고 앞에 설수 있게 하는 일반버스 노선검토,
- 신촌기차역에서 후문까지 셔틀버스 운행, 자대와 공대에 과방 마련, 공대 식당건설

3. 소외받는 행림인

- 최첨단 종합병원을 옆에 두고도 '보건의료 공제회비'의 혜택을 누릴수 없다?
- 행정의 독립일원화, 의료공제 절차개선, 교육여건 개선, 의대시설확충

4. 소외받는 우리, 여성

- 여성적 글쓰기/말하기/웃입기의 실현, 다이어트 반대 운동, ban the bra movement, 섹스북 강연회

학생사회를 자치의 공간으로 우뚝세우자!

우리에게는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할때 침해당하고 마는 권리들을 예외 나가기 위한 '다양한 집단'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개인이 권력으로서 세력화하기 위한 주체적인 싸움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저항을 가속화시키는 속에서,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쟁취해 나가는 자치의 과정을 달성해 갈 수 있는 것이며, 비로소 우리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주인공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다. 비로 우리들이 주체로 서서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고, 우리의 공간들을 통치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화라고 이름지어진 우리의 학생사회를 자치의 공간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자치의 공간들을 쟁취해 내어야 한다.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립니다!!

우리들의 자치 활동을 보장받읍시다!

우리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대학평가 다시보기

동물 달리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제비: 앗! 심판, 나는 게 자신 있는데, 하늘로 가도 되나요?

고래: 난 수로를 만들지 않으며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개미: 빨리가는 건 못하지만, 꼼꼼하게 보는 건 자신있는데...

대학평가가 실시된다. 단 하나의 자를 들이밀면서...

다른 것을 상상할 여지는 없다. 과거와 같은 미래만이 있을뿐 확일과 경직이 지배하는 나라를 위해!

제비와 고래와 개미는 달리기 대회에 참가할 것인가?

이땅의 '소외집단' 여성을 위한 이화여대는 대학평가의 높은 점수를 위해 자기 살을 깎아먹을 것인가?

1. 대학의 차별화? 경쟁력이 확보된 대학만 지원하겠다?

하나의 주어진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는 대학종합 평가에 대한 반대운동 벌이기..

2. 대학평가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함께 합시다.

대학평가 시행상황 공개 요구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는 대학평가, 강의평가 보장

점수를 위한 졸속행정에 반대 - 과방을 축소시키고 교수실을 늘리는 것에 반대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라 - 특성화 대학으로의 차별화에 반대

3. 본교 의대가 최우수 7대 의대중 하나라고?

이화여대 의대의 우수영역은 학생뿐인가?

4. 대학평가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강의평가의 기준을 함께 상상합시다.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자치의 실험으로서 대학평가제' 실시

-대학평가 기준은 체플, 성적, 금훈, 등록금 제도의 문제, 학내 자치공간, 복지수준, 강의수준을 기준으로 제시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립니다!!

우리들의 자치 활동을 보장받읍시다!

학교가기가 두렵다? 학부제 문제제기

제2의 입시인가? 자유로운 학문선택의 기회를 가로막는 전공정원 제한은 새내기들의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다른 문제도 많이 있다. 복수전공제로 인한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미비, 전공필수 학점의 과중함 등의 문제점들, 그리고 가정학부의 경우 가정관리학과, 의류직물학과, 식품영양학과와 세 과가 연관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로 통합해 폐강된 공통커리를 부활시켰다는 점, 문·이과 학생들이 한 학부를 이룬다는 점 등.... 이제, 혼자서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 함께 고민해보자.

- 96, 95학번 반대표와 학부대표가 함께 모이는 테이블 마련

우리들의 자치 활동을 보장받읍시다!

학생 주체들의 교육받을 권리보장

1. 스스로 우리들의 강의를 찾아나선다

- 학생들의 강의 개설권과 폐설권의 자율화

2. 주어진 잣대에 의해 검열당하는 평가는 싫다

- 상대평가 폐지 및 절대평가 실시

3. 영어과목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의무화 되었다고?

- 교양필수가 아닌 선택의 자율권 보장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립니다!!

우리들의 자치 활동을 보장받읍시다!

우리의 자치공간을 위협하는 소비문화 반대

1. 신촌역사 신축반대

대학가의 중심부에 패션, 문화 종합타운이? 지하 3층, 지상 14층 건물이 지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이화 테니스코트의 중간지점까지 철로를 복개해 건설된다고 한다. 큰일이다. 우리의 자치공간이 침해받고 있다.

- 신촌역사 신축반대 운동을 위한 집회와 항의방문,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사업 등을 계획하자.

2. 우리가 원하는 학교 앞 거리 만들기

- IDEA대회 '새로운 이대앞 거리'를 찾습니다

- 서울 지역 학교들이 함께 모여 신촌앞 거리 가꾸기

3. 3자 생협 건설 추진

- 신축 학생관을 생협이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

- 수익금을 학내복지 문제로 환원하도록 하다. - 신학생생관에 사회과학 서점 설치

4. 공사 안전문제 점검 및 개선

학생사회 재구축, 그 구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이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기 위해 깨어야 할 과정속에 구조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놓여진다. 개인이 모여서 다양한 집단을 형성하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슈화시키고 정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들이 주체로서 행사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고, 동시에 그 기제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의 세력화는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주체와 network라고 불리는 구조 사이의 간극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이며, 자치와 소통의 networking이다. 이러한 networking을 위해서는 '총학생회-단대학생회-과학생회'로 편제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그대로 모사한 위계적/수직적 학생사회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런 위계서열화의 과정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구성된 각급의 권력 단위간의 수평적 소통을 위하여 각급 단위의 조합의 구성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비로소 우리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권력을 '생산'해내는 것은 가능해진다.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립니다!!

공식과 비공식의 당을 허물자!!

구조의 유연화 문제 - 다양한 소모임의 활성화!!

1. 소모임에 일회성을 넘어 서기 위해 학내 여론을 이슈화할 수 있는 대중적인 기재 마련
- 소모임을 위한 자유발언대 설치, 소모임 소식지 발간
2. 소모임 주체들간의 networking
- 각급 단위의 서로다른 지반에서의 소통을 위한 상설테이블 마련
- 학생회 간부들만의 전학대회를 소모임 주체들과 함께 재구성한다.
3. 소모임 형성의 자율권 보장
- 소모임의 인준은 학생회가 임의로 인준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주체의 서명운동을 통해 인준 가능케 한다.
4. 소모임 공간확보를 위한 계획 마련
- 총학생회에 집행국 건설하여 학생회의 물적 기재 공유를 조율한다.



3. 생산의 공간으로 점유하라 / 생산하는 대학만들기

대학인은 소비자인가?

90년대 권력질서는 민중이 집단의 힘을 형성하지 못하고 끊임 없는 무한경쟁 속에 파편화된 개인으로 있기를 강제 받아 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소비하듯이, 모든 것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나 합리적 선택의 문제로 치환되고, 이 속에서 서로간의 적대는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자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적 개혁의 '수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권리만을 가지는 '정치소비자'의 위치를 강제 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화 또한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학생'이라는 집단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한 명의 개인으로써 전문화되



고 다양화된 교육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더욱 경쟁력있는 이화인이 되기 위한 취업의 고리표 달기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선택할 권리만을 부여하는 고착화된 우리의 민주주의와 주어진 질서에 대해 소비하는 대학생으로 위치지워짐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하자.

생산하는 대학으로 만들어가자.

선거시기에만 빛을 발하는 대학인들의 제한된 시민권, 기존의 권력은 투표하지 않는 대중을 비민주적인 시민으로 규정하며서도 실질적인 정치적 불만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통로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정치적 자폐아로 길들여지는 우리들, 우리가 선택할 길은 정치적 혐오와 무관심이라는 방식인가? 혹은 제한된 시민권을 가진 불구화된 주체인가? 이제 이러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이화라는 권위의 벽을 부수자. 합법적인 주체들이 더욱더 공식화되고 비합법적인 언더들이 더욱더 비공식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공식과 비공식의 당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주어진 공식화된 것만이 아닌 다른 방식, 다른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해방시키고 자치의 움직임들을 시작하자. 이러한 생산의 몸짓을 통해 대학은 더이상 단순히 대사회적인 문제제기 집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권력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점유될 수 있다.

4. 이화는 프로메테우스의 부활을 꿈꾼다.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20년 남짓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생산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옷, 머리, 신발..... 이미 기존에 주어진 것은 아니었나?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과 사고, 행동은 어떠한가? 당신이 생산한 것들인가 아니면 기존의 주어진 것들인가? 혹시, 당신의 생각과 사고, 행동들은 주어진 것들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나?.....

텔레비전에서 떠돌아 다는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소위 '민주시민의 정치적 행동' 이외의 것을 꿈꾸는 것은 왜 야만적인가? 이성애주의적인 혹은 가부장적인 관계 이외의 결합을 꿈꾸는 것은 왜 비정상적인가? 주어지는 규율에 순종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것 이외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왜 불온한가? 그냥 주어진 것,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것을 강요한다. 경쟁력 강화라는 단서를 붙이며, 제 위치에서 꼼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을 강요한다. 기존권력이라는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절대 분리되지 말고 모두가 힘을 합칠 것도 당부한다. 여기서 그들은 금기를 깨는 것도 동일성을 거부하는 것도 용납치 않는다. 혹시, 이속에서 누군가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딜레마속에 멈추어 서서 불구가 되거나 무관심의 자폐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아니면, 또다시 길들여지기를 고수하며 스스로를 가두게 될 것이다. 큰일이다. 어떤 곳에도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상시기를 대동제의 공간으로

이화에는 의미있는 공간을 획득하고자 한 역사적 실험들이 존재해 왔다. 이것이 바로 사치와 향락의 표상인 메이켄 제도를 넘어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들을 '대동'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묶어낸 이화의 대동제이다. 이것이 바로 이화라는 공간속에서 우리들이 쟁취해낸 자유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자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대동의 공간



을 자치와 민주주의의 참의미로 복원시켜내는 자유이다. 이것은 단지 5월 한달간의 일회적인 축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숨어있는 이화라는 공간을 새롭게 복원시켜내는 것이다.

소비하는 이화에서 생산의 공간으로의 전복을 꿈꾸는 우리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벤트화된 대동제 속에서 주어진 자유만을 소비하는 이화가 아니다. 바로 이화인이 주인 공이 되어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권력 질서에 맞서 당당한 풍자로서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공간, 생산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TURN OFF EWHAI!/ 당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라.

우리는 이화라는 대학이 우리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들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

어, 오히려 이제까지 싸움이 없었던 공간에서 싸움을 벌여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전제들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던지는 것을 시작하자. 모든 기존의 것은 정치시키고, 기존의 질서와 사고의 틀에 갇혀 꾸며진 이화를 이제, 꺼트리자, TURN OFF EWHAI!

형식의 틀 뒤집기!!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은 '강의' 혹은 '일방적인 교수의 형태'였다. 우리의 대학강의는 종종 명망있는 강사진의 포진을 통한 강연 상품의 소비나 기존의 공식 교육체계로의 참여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 기존의 체제를 재생산해 내고, 기존의 체제에 걸맞는 인간형을 만들고 그에 합당한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었다. 지식의 더 많은 집적과 확대를 교육으로 사고하고, 교육이 학습으로 치환되어 왔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교육을 꿈꾸어 보자. 우리의 교육은 현실을 새로이 거부하며, 새로운 것을 꿈꾸어 보는 정치적 복원이다. 이것은 바로 기존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치를 꿈꾸는 것이며, 역사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지성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소통하는 울타리를 고민해 나가야 하며, 우리들이 주체로 선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는 하나의 새로운 교육공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당한다. 소위 명문여대의 신화, 전문성의 신화, 이윤창출의 규모로 학문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혹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삶의 규율들이 모두 지배의 문법이 될 수 있다. 20년 남짓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형화 되었다. 정치적, 민족적, 성적, 교육학적으로 규정된 우리들의 정체성은 자본의 질서가 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삶의 정형들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의심해 보고, 그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의 전변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정형들을 제한없이 의심하는 속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생산의 상상'이 가능해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기반한 정치의 확장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싸움이 있었던 공간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넘

들여다 보기 넷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렵니다!!

대동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복종을 거부해 보고자 한다. 대신에, 기존의 것과는 다른 방식, 다른 행동, 다른 생각과 사고를 꿈꾸는 자유로운 상상을 시작하려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경쟁할 것을 강요해 왔던 대학의 질서 또한 거부하려 한다.

이제, 대학은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던지고 일어나 저항의 상상을 시작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우리 것이라 불릴수 있는 생각, 사고, 행동들을 생산하는 공간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의 대학만들기, 이화 안에 프로메테우스의 영혼을 부활시켜라!

실천하겠습니다!!

TURN OFF EWHA! 생산하는 대학만들기

1. 과학생회와 함께 하는 제도개혁 청문회

- 등록금, 금혼제, 성적제도 청문회 등

2. 그려진 선 밖을 색칠하라 - 공간을 점유하라!

공간은 구조의 문제이다. 공간을 통한 지배화를 허물자. 더욱더 공식화 되어가는 기존 권력과 더욱더 비공식화 되어가는 소수들간의 경계를 허물자. 공간을 통한 지배에 대해 저항을 시작한다.

- 권위의 상징인 대강당을 저항의 진지로 점유하라.

- 소외되고 있는 종과, 공학관을 이제 우리의 공간으로 복원하라! 체험, 공학관 오르기!

3. 우리는 획일화된 이화, 동일성의 환상을 거부한다. 당신이 손들 곳을 찾아라!

- 소수자들의 정치적 확장을 말한다

각 주체별 소모임의 활성화/강연 위주가 아닌 몸으로 체험하는 세력화가 필요하다.

ROCK/동성애/여성/교육/정보/환경/노동 등

4. 광장의 의미 복원 - 이화광장을 생산의 공간으로 점유하라.

이화인이 주인공이 되어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권력질서들에 맞서 주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 속에서 당당한 풍자로서 흥겨움을 즐길 수 있는 생산의 공간으로 복원시켜 내어야 한다.

다이어트/코르셋/EWHA 티

대학문화의 먹기와 입기 바라보기

문화가 없는 곳에서 시작한다.

리뷰, 오늘예감, 문화과학, 현실문화연구, 키노, 이다, 이매진 문화에 대한 무수한 담론들이, 무수한 잡지들이 쏟아지고 있다. 개중에 가끔 머리를 치는 기발한 문장들이 있기는 해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가슴을 치지는 못했다. 모든 것은 현학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구경하는 사람들이다.

문화의 부재를 걱정하던, 혹은 문화의 부재를 극복하려는 실천이 그렇게도 많이 떠돌아졌지만 여기에 남은 것은 결국 무수한 담론뿐이다. 199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화는 환상이고, 그저 흘러가 버리는 또 다른 유행이며, 사람들 사이에 '매니아'라는 쉽게 발단을 수 없는 새로운 구획을 만들었을 뿐이 아닌가? 그래서 '문화'는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자문하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



가? 문화에 대한 담론인가? 이른바 '문화적인'이라고 규정된 것을 영유하는 삶인가? 아니면 문화인가? 그렇다면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

현학적인 담론들로부터 문화를 구출하자. 문화가 또 다시 일부계층에 속한, 지식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지상 위의 그 무엇으로 승격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극장이 많이 생기고, 서구와 같이 발달한 영화사업과 무수한 영화제와 또 박물관과 미술관이 우리가 바라는 문화적인 삶의 이상인가? 문화에 대한 개념 규정은 뱃 속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미 문화적이라고 규정된 무슨 영역에 대한 집중과 영유, 혹은 그것을 평론하고 성적매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는 창조되지 않는다. 어떤 완벽한 문화론이 우리, 빈곤한 삶의 대안이 될 것인가? 현실과 개인 사이의 심연에 다리를 놓는 삶의 문화! 이제 필요한 것은 움직임이다.

1. 대학에 거는 거대하고 무모한 기대
문화의 특정한 유형으로서 '대학문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엄혹한 70년대를 낭만과 젊음의 시대라고 회고하는 이들은 통기타와 생맥주, 장발의 사내들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그 젊음을 추억하기 때문이며, 80년대가 저항의 시대로 불리는 것은 최루가스와 화염 속에서 막걸리와 투쟁가, 그리고 탈춤과 북소리,

장소리가 가득하던 대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학은 사회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온 주도적인 집단이며, 그것은 문화에 있어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치적인 독재가 수면에서 가라앉고, 경제성장의 수혜를 받은 세대들이 20대에 이르게 된 90년대, 이념과 저항과 낭만마저도 사라진 대학에 대해 말들이 많다. 대학이 침식되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안도, 그러나 이제 대학의 문화가 {스포츠**}의 가슴을 가볍게 떠다니는 수준이라는 것과 그나마의 것도 상품가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부인할만큼 세상모르는 이는 흔치 않을

66
새로움 자체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대학문화에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새로운 것, 독특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안이다. 99



것이다.
대학문화의 장식과 위기를 극/북/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그것들 중의 많은 것은 신세대라는 우리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 속에서 추출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다. 자각적이고 일회적인 것들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90년대 시대의 명제가 동지를 틀고 있다. 문화적인 실천과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그 필요는 무엇에 의한 것인가? 이제까지 대학은 그러한 역

할을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러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80년대의 영광을 쫓고 있었던 것인가? 무엇을 위해 문화적인 실천이 필요한가? 지금은 무엇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가가 빠져버린 실천과 논의의 결과로 남은 것은 사회와는 다른 독특함, 새로움. 단지 그것 뿐이다.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지만 새로움 자체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대학문화에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새로운 것, 독특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안이다. 대안문화의 기능이 아직도 대학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대안문화였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80년대의 이땅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심정과 삶을 대변하고, 있는 그대로 현실의 가장 진실한 부분을 통해 사회와 개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들 사이에 접점을 형성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했던 80년대 대학의 문화, 삶에 기반한 문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세찬 세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의 성과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문화는 문화라는 이름의 허영이며 환상이고, 그래서 그것은 공허하다. 현실의 삶이 공허하다면 그것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려한 문화적인 기제들이 아니라 공허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다. 삶이 없다면 문화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자. 부디 머리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우리들은 다시 대학에 무모한 기대를 한다. 그것은 대학이 우리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한 꿈을 잃지 않은 우리들이 지금 있는 곳이기 때문이며, 아직은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먹음속 깊이 반란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어동아리의 활개와 영어학원의 번창과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의 바람이 대학을 모두 뒤덮어 버렸다. 우리의 문화는 의식·무의식적으로 모두 취업을 위한 전략과 전술 속에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다 자극적이고 수동적인 놀이만이 남게 되었다.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이도, 춤을 추는 이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대학, 주체가 사라진 대학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가의 선택보다는 삶의 전략 수정이 아닐까.

1) 먹기 -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얼마큼.
다이어트와 먹기

현대에서 신체는 사회화를 위한 하나의 기호가 된다. 이전에 정신적인 가치의 연마 정도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상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갸름하고 부자는 투실투실 살이 찐 시대는 지나갔다. 식이음식을 먹고 헬스와 운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부유한 이들은 애처롭게 날씬하고, 인스턴트음식에 찢은 가난한 이들은 그 상징으로 부은 듯한 살을 얻었다. 현대사회는 푸코식으로 하면 기율통제에 의해 주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전쟁, 변형을 가하도록 유도한다. 이제 갸름한 신체는 더 이상 허리가 휜 정도로 열심히 일한 노동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을 향한 차절한 투쟁이다. 우리에게서 적당히 먹고 풍족하게 살 권리마저 빼앗아 간것은 무엇인가? 지하철에 신문에 낚이 뜨거울 정도로 먹지먹지 물어있는 다이어트의 전선으로 나서라는 광고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지만 않다면 마음대로 거리를 활개쳐도 된다는 말인가.

이화인과 함께 다이어트 식품
반대운동을 벌이고 싶습니다.
여성의 미를 사회적으로
고정, 왜곡시키는 행위들을
고발합니다.

우리들의 힘겨운 먹기 : 식당

세상이 우리들에게 개미허리를 요구할 때, 우리들의 큰동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싸움을 준비할 전투적인 여성을 길러낼 준비? 아니면 역시 개미허리에 일조하기 위한 전략? 그것도 아니면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고결한 정신성의 발휘인가? 도대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아니 식당에 들어온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먼지나는 학생관 가건물에서, 자공대의 식당에서, 도서관지하에서 넘치는 사발면냄새와 김밥,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간신히 의자에 매달려 있어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화에서 밥먹기의 힘겨움을 안다. 식당 하나를 그럴듯하게 꾸며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이화는 이제 너무 넓고, 너무 많고, 식당은 단지 하나뿐이다.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권리는 학생에게는 없는 것인가?



이화인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썩썩하게
먹고 힘차게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2) 입기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와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입히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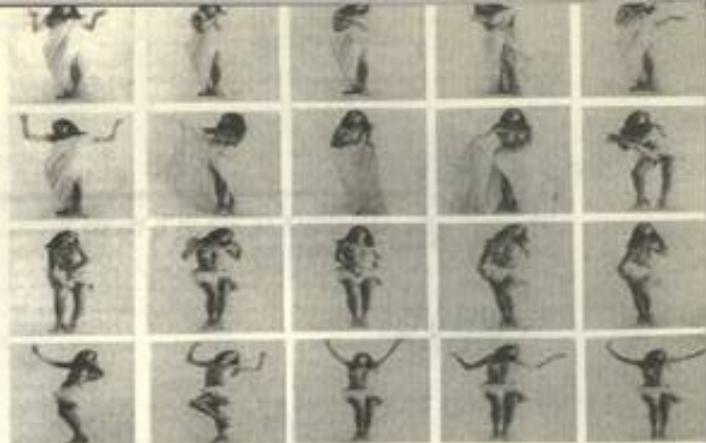
웃입기가 아니라 패션입니다

사회적인 웃입기의 기능 - 옷의 기능은 다양하다. 정숙함을 표현하기 위해,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으로 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등. 자연환경과 재료, 도덕기준과 미적 정치적 관념, 종교적 가치에 의해 옷의 모양이 결정된다. 지금 우리들의 웃입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의 고만을 시작하자.

입에 물칠이나 겨우하던 우리 부모세대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요즘 우리들의 엄청난 입을 거리에 대해서, 웃입기가 아니라 패션이라고 한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패션잡지 때문에 유행의 간격이 짧아지는 것인지, 요즘 세대의 열정때문에 패션잡지들이 활개를 치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어쨌든 지금도 희한한 머리와 옷들이 거리를 걸어들고 있고, 계절마다 바뀌는 립스틱들이 또 50% 왕창세일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대안인가?

대학의 웃입기는 분명히 운동의 하나의 지류였다. 민



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되었던 우리 웃입기는 이제 대학을 떠나 사업체로서 독립을 하게 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즘 대학과 젊은이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한편에서 우리웃입기보다 더 대중적인 흐름이었던 공동체주의는 여전히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 모양이 조금 달라졌다. 몇년전을 기억해 봐도, 과티나 학교티는 아름다움보다는 무엇을 담아서 만들 것인가?에 중심이 있었고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쌀 것, 누구나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한정되었다. 드디어 폴티가 과티로 대동제에 등장한 올해는 정말 기념할 해가 아닌가! 이제 우리웃입기와 공동체 웃입기는 모두 우리에게 식상한 과거의 때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66

드디어 폴티가 과티로 대동제에 등장한 올해는 정말 기념할 해가 아닌가! 이제 우리웃입기와 공동체 웃입기는 모두 우리에게 식상한 과거의 때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99

이화의 공동체: 유행의 시대, 진지함을 찾아서

유행의 기이한 유행, 학교티입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방, 티, 우산, 화일, 스티커.....교복을 입는데도 이것보다 더 할까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이화티가 불티나게 팔리는 것은 학교에 대한 우리 자부심의 표현인가? 세간에는 분명히 이것을 학벌주의의 표출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이러한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대학은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한때 베네통 가방이 그렇게 유행했던 것처럼, 지금 Eastpak 가방이 우리들의 어깨 위에 붙어있는 것처럼. 이화인, 대학인임이 그거의 이름과 사회적인 지위때문에 자랑스러워도 되는 것인가? 어려운 사회분석을 하지 않아도 한국사회에서 학벌주의가 낳은 불평등과 교육구조의 모순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화티가 조금은 썩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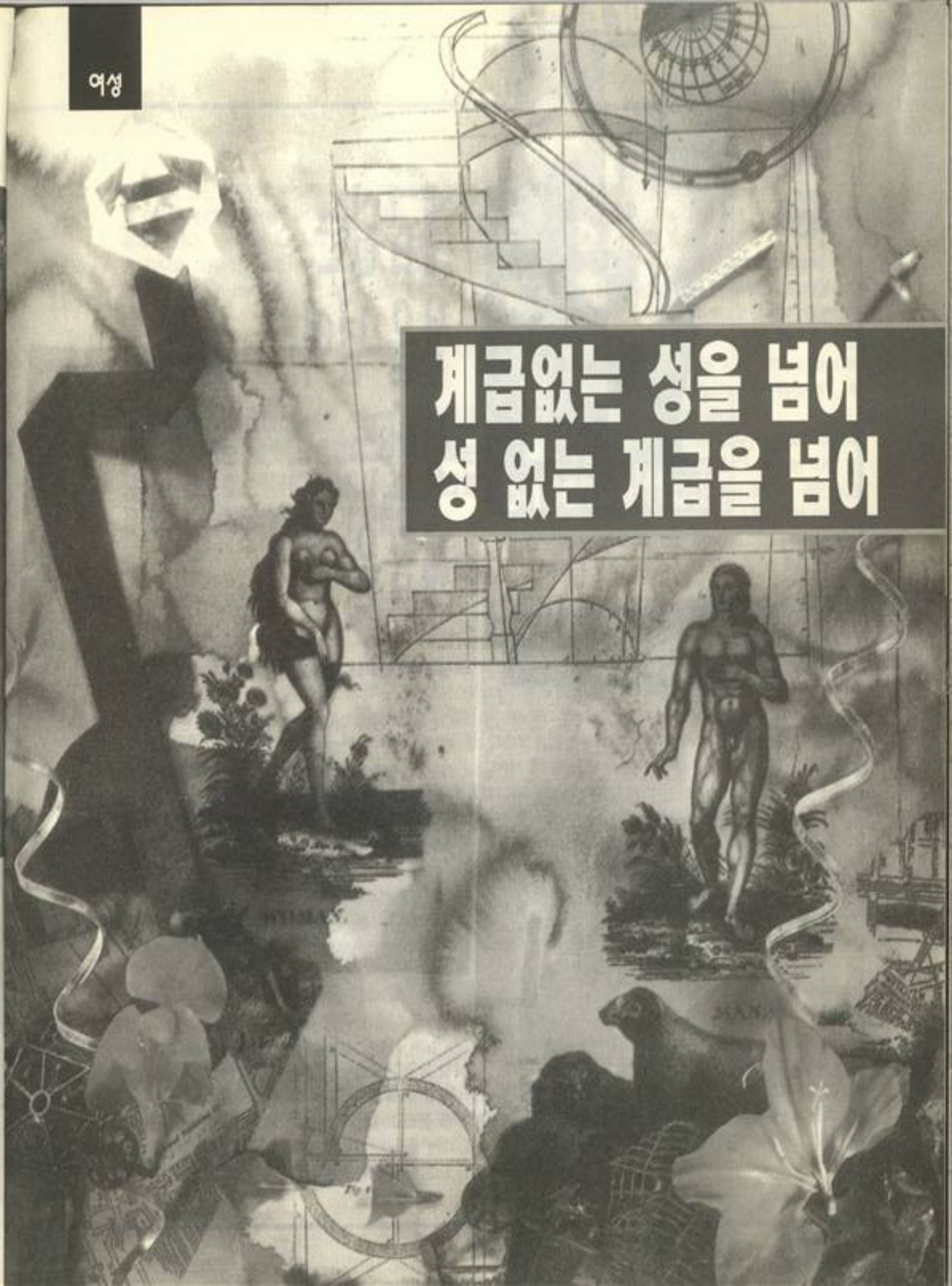
모색 그리고 - 실천! : 옷입기는 과연 실천이 될 수 있는가?

영화 [코르셋]에서 [BAN-THE-BRA]운동까지 :
[코르셋]을 보고 싹새아겠다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고, 이사회에서 규정된 것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하는가를 문득 깨달았다. 여성들의 신체를 특수화하고 획일화된 미적 기준을 강요하는 옷입기는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옷입기가 자매적인 개성과 획일적인 공동체주의를 넘는 자유의 실현이기를 꿈꾼다.



여성의 신체, 가슴에 대한
금기로부터 벗어납시다.
BRA의 신체억압과
여성의 건강,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합시다.
대안의 옷입기를 위한 시도! -
여성주의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계급없는 성을 넘어
성 없는 계급을 넘어





계급없는 성을 넘어, 성없는 이 없는 계급을 넘어

유례없는 '성정치'라는 용어의 출현은
실상 성에 대한 지배담론의 비합리성과
비민주성에 대해 다른 용어를
유행시킴으로써 맞불을 놓았을 뿐이다.
성담론은 성에 대한 객관적인 제언도
순수한 욕구의 표상도 아니다.
문제는 추상적인 성적 논쟁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이다.
성담론이 권력에 대항하는
정치적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구성이 필요하다.
성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는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세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구성하라.

그는 성희롱이 아니라 그저 애정의 표현한 제안이었
다고 한다. - "좋아요, 오빠!"
그는 성희롱이 아니라 제자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었
을 뿐이라고 한다. - 신승후 교수
그들은 성폭력, 집단 강간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 놀
이였을 뿐이라고 한다.

성관계? 성폭력!

문제 하나. 성은 존재하나 성정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성적 경험의 부재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사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을 보게 된다. 하나는 자신이 체험한
사실과 경험을 성별화(genderizing)시키고자 하는 것
이고, 또 하나는 그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
분의 이 사회에서 성적지위(gender status)의 우위
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 - 흔히 우리는 이들을 남성이
라는 용어로 표현해 왔다 - 은 자신의 행위가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성별화시키기 보다는 어떤 성적구별도

존재하지 않는 '일반의 문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
고 어떠한 성적인 해석의 여지도 부인한다. 그들은 이
렇게 말한다. '난 페미니스트들이 전혀 관계없는 일들
을 가지고 그들의 용어로 짜맞추는 것을 싫어한다. 이
렇게 주의를 끌어보려고... 꼭 그렇게 해야 할까.....'

66

이화 내의 구성원들은 여성, 또는 같은 동시
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연령의 젊은 이라는
공통의 요소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의식, 연대의식을 갖기가 어렵다.

99

남성중심의 그리고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성억압에
대한 투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화의 모습을 보면
이런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화 내의 구성원들은 여
성, 또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연령의 젊은
이라는 공통의 요소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
통의식, 연대의식을 갖기가 어렵다.

이는 우리 사회속에서 남성들은 비록 여러가지 계급
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공통의식으로
묶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담론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
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은 남성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그 사회
적 존재가 비로소 인정되는 20여년의 경험 때문에 그
것이 부재하는 공간에서 하나의 공통된 의식, 경험을
창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화라는
여성공간은 그것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 예를 들면 군대로 대표되는 남성들만의 공통 경험-
이는 다른 여성들만의 공통의 경험과는 달리 사회적인
가치가 인정되고, 공식적인 시안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이나 '의리' 또는 '결속력있는
선후배 관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고, 졸업이후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회에의 복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각자의 자폐적인 개성으로 자신을
치장하기에 바쁜 것이다.

이 속에는 '이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대표적 멋내
기, 세련됨과 함께 중산층 또는 일부 사회 고위관리층
의 현모양처 타입의 구성원과, 프로로서의 우먼파워
를 가시하며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독립적인 자기 영
역을 구축하는 여성들로 나누어 지게 된다. 이것이 바
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짓이며, 개
인으로서의 자기 미래에 대한 준비이다.

남성이라는 (혹은 남성중심적이라는) 권력이 우리에
게 던져준 것은 복종하라는 말이었다. 우리는 이에 반
기를 들고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의 개인으로
분해되면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함께 모이고 세력화하는
것. 그속에서 소수자들의 조직적인 힘, 조직적인 실천



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 이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성별화를 이야기하자. 드러나지 않는 성적억압을 말
로 만들어내고 주장하는 것, 그리하여 소수자의 경험
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 소수자들의 조직화된 힘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 내자. 그리
고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상실된 여성의 성경험, 여성
의 언어, 여성의 연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이를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강간, 성희롱 등의 개념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소수
자의 성을 개념화해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강
간, 성희롱 등 우리가 지금은 성적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들은 이전까지는 성관계의 하나의 유형에 불과한
것이였다. 이를 성관계로 보는 관점 속에는 지배자의
성적 경험, 성적 선호도만이 존재할 뿐, 그 속에서 대
상화된 이들의 성적 경험, 언어는 부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성관계 속에서 이를 억압받는 사람의 언
어로 표현해낼 때에는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받게 된다.

들어다 보기 하나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립니다!!

여성들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라

여성적 말하기/글쓰기/웃임기의 실현

문제 둘, 성폭력의 사회적 효과, 성적억압을 정당화시키는 사회에 손을 들자. '이의 있습니다'

힘(force)과 폭력은 모든 지배질서의 일부분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남성중심의 성권력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데에도 이 폭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특히 강간-이야말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떠받치는 주된 버팀목이다. 여성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쉽게 남성중심의 사회 구조에 투항하게끔 하는 것도,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 속에서 한 사람의 남성권력에 복종하게 하는 것도, 그것을 벗어났을 때 직면하게 되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폭력을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강간의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 밤 늦게 혼자 다니지 말 것-이는 여성들이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치명적인 악점이 된다-지나친 노출금지, 남성동료의 애정표현에 대해서 알아서 거부할 것(강간에 대한 긍정 표현이 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예는 미니스커트 단속), 등등등... 부재하는 성폭력의 위험은 실재하는 여성의 생활 전반을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 우리는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성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대해서 행해지는 폭력적인 강제 행위'라고 본다. 강제적인 폭력행위라는 것은 현재의 성폭력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협소한 해석을 말한다. 즉, 강간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지는 성기의 삽입'이라고 하는 '성기 중심'의 성관계 개념과 '피해자'에게 유인을 두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이 여성의 삶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성적 차별을 유지시키는 주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터지는 한 두 개의 강간 사건은 전체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 넣어 보호자(남성)의 지배를 스스로 찾아들어가게 만든다. 즉, 폭력에 대한 공포가 현재의 억압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마치 전쟁의 공포가 항시적인 군대의 유지를 정당화시켜 주듯이.

들어다 보기 둘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립니다!!

자기문화 만들기 마당

여성 그리고, 소외된 성적 소수자들의 연대

대동제를 남성중심의 폭력 문화로부터 보호하자.

동성애자/여성/성적 소수자들의 불만만이 아니라 '몸짓'이 있는 문화제를 만들자.
우리는 이것으로 남성중심의 이성애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꿈꿀 것이다.

성적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헌법의 신화를 파괴하라.

끊임없이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주류사회의 법과 제도, 이들은 헌법이라는 신상불가침의 영역의 신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억압을 감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서는 더이상의 침묵이 필요치 않다. 헌법과 현실의 이율배반을 이야기하자. 우리는 제도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제도의 폭력을 본다. 이제, 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여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나에게 강요하는 것, 우리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다.

학교밖으로 시선을 던지자.

가정이라는 굴종의 수레바퀴에서 끊임없이 평온한 가정을 고집하는 아내라는 이름의 여성, 그녀들이 스스로에게 감행하는 폭력의 굴레를 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부장제의 표상이며 현재적으로 아무런 공식적 힘도 갖지 못하는 구시대 산물인 '호주제도'를 철폐시켜야 하고, '재산분할 신청권' 쟁취해 내야 한다. 이것은 여성도 가정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은 반드시 남성의 보호 아래에서만 형성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가정내 폭력, 이제 이것의 근절에 앞장설 수 있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

여성을 고용하는 사회,

- 우리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동일한 노동으로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탁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대기업 채용시 여성사원 외모를 규정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성차별을 암시한다. 아무리 외모에 자신이 있더라도 이것의 철폐가 시급하다. 성차별대기업을 사회외문화 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
- 현재의 생리휴가(월차휴가)를 쟁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년단위로 계산한 년차휴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아동의 출산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며, 외국처럼 우리도 남성도 아동양육, 출산을 공통으로 책임지기 위해 출산, 양육휴가를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성보호뿐 아니라 부성보호의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언제 당할지 모르는 성폭력의 문제에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으로 설정되어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개정운동이 필요하다.



총학생회



우리는 슈퍼학생회가 필요없다

학생회 거둬내기



손
들
자
유

1. 학생회 선거?

우리는 매년 천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올 때가 되면, 선거의 홍수속을 거닐게 된다. 과학학생회, 단대학생회, 총학생회 선거.... 꼼꼼히 신문, 리플렛, 자료집을 읽고, 후보들의 유세를 열심히 경청한후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는 이화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거시기의 우리의 권리인 것으로 공식처럼 규정받고 있다. 여기서 투표하지 않는 이화인은 비민주적인 이화인으로 낙인 찍힌다. 혹은 그들의 무관심을 비판받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진다. 과연 학생회 선거는 민주주의로 가는 자름길인가?

학생회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학생회 거둬내기

1996년 8월의 여름, 폭풍같은 헬기의 굉음과 전쟁의 위험마저 느껴지던 연세대에서,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잃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함께 전경들과 맞서 싸우던 학생들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도, 언론의 비상식적인 왜곡보도도, 학생회라는 권력도 아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학내 민주 기본권에 대한 학우들의 기본적인 승인이며, 우리의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우리는 잃은 것을 슬퍼할 사이도 없이 다시 학생회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회 선거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한 사람을 선출하는 직접 투표의 방식을 취한다. 결국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고 '대표성'을 발부해 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이다. 학생회 선거,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이제, 우리가 잃었던 민주주의를 발견해 보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거는 '의무'이기 이전에 '권리'가 되어야 하고, '자치'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회 선거에서 우리들이 위임하는 학생회에 대한 권력은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이것은 선거라는 공간이 결국, 학생회 선거라고 하는 장은 명확히 '권력'을 생산해내는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우리의 권력을 생산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자.

그러나, 선거만이 전부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신화속에 가려진 굴종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투표하지 않는 대학인을 끊임없이 비민주적인 대학인으로 규정지으면서도, 유일한 대표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도 터주지 않는것에서 보여지다. 우리는 어쩌서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으로 치환할 수 밖에 없는가? 어쩌면 우리는 투표라는 절차속에 가려져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취를 스스로 한계지어 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표피기를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망상에서 벗어나 실질적 민주주의를 찾아나서자.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라는 공간이 민주주의의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실가치는 바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현실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제 선거라는 공간속에서 범위를 넓혀 현장에서의 정치를 꿈꿀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권력의 형성은 일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가능해진다. 선거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정치적 실천을 만들고 조직하는 것,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공

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자치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권리찾기는 찬성 혹은 반대의 신성한 투표용지 한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답안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왜 어째서 아닌지, 왜 그런 것인지를 말할 권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이제, 위계화된 제도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networking을 말하자, 그리고 단지 포장된 객관식 답안지만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실어보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앞에 위배되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임을 기억한채.

학생회 거듭나기

2. 학생회의 권력의 독점을 허물자.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의 변화의 소용돌이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공간이 되어버린 대학사회, 이곳은 교육구조와 지식 생산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상아탑이라는 밀로 표현

되던 대학사회의 낭만적 비유 역시도 이제 과거의 것이 되어 버렸고, 어느 누구도 학생회가 내부에 동자를 틀고 앉아있는 학생사회를 고정불변으로 지켜나가야 할 절대불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제, 학생회를 있는 그대로 보자.

학생회 공신력? 아젠, 재구성이 필요하다.

학생회는 학우들로부터 학생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학생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대표권을 위임받은 듯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우들은 학생회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학생회 권력에 대하여 무한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학생회 권력이 학생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따라서 학생회는 모든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사후승인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회가 대중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물적 자원을 독점하고 자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반대한다. 권력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의 문제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주)}



주) 예를 들어 환경, 인권문제, 지식/정보의 문제를 바라 볼때, 우리는 이것의 검열과 배타적 소유에 맞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위에서 대중적, 민주적 통제와 영유의 노력들을 실천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 정보독점 반대, 환경파괴와 핵확산에 대한 반대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를 사물에 대한 전일적인 처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통제와 영유라는 관점으로 전환한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권력의 독점이 아니라 대중적 공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 약

들어다 보기 하나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렵니다!!

공식과 비공식의 담을 허물자!!

물적 지원의 공유

1. 각종 소모입의 물적 자원 공유 - 총학생회 수렴통로 확보!
2. 도서관에 공동세미나실 마련
3. 인문관 교수 세미나실 공유
4. 수업외 전산실 확충 및 전산실 연장 개방
5. 도서관 열람실 개방 시간 연장
6. 각종 소모입의 물적 자원 공유 - 총학생회 수렴통로 확보
7. 이화의 암흑지대 - 학생관의 휴게 공간확보
8. 전시공간 찾아 삼만리? - 건물 하나가 전시실과 연습실로 나뉘어진 가건물의 전시실은 못을 박을 수도 없다. 우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시실을 마련하자.



학생회 거듭나기

3. 학생회 거듭나기. 이제 학생회는 이렇게 간다!!!

우리는 슈퍼학생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학생회를 선출하고 우리의 대표체로서 인준한다면 학생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권력이 다. 그러나 권력이 독점화되면서 거대한 몸짓을 휘둘 때면, 이런 권력에 대해 우리들이 일개인으로 요구하는 권리는 분해되어갈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언더그라운드 속의 개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주체로서 서는 자각변동이 필요하다. 이제 지상으로의 세력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학생회의 일꾼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학생회는 그 과나 단대, 학교의 공통적이 문제들에 기반해서 운영되므로 우리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학생회가 아닌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세력화가 필요하고, 학생회는 우리들의 모든

다양한 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슈퍼학생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와 자율의 상호승인의 매개고리로써 자기 거듭나기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은 학생회가 분점할 수 없다.

학생사회의 권력은 독점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영역을 운영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내며 세력화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학생사회의 권력은 학생회가 임의로 분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회가 우리들로부터 인준받은 권력을 이려저려한 각급의 단위로 이전하여 권력을 분점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권력을 가진 학생회 운용 주체들의 주관적 관점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사회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주체의 입장에서 시혜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다른 단위와 분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관계'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며, 그 범위와 성격은 해당 시기의 정세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을 생산하는 학생회 선거 시기에서부터 판단을 받는 각각의 정치적 입장들은 자신이 향후 운용하게 될 권력의 성격을 대중으로부터 명확하게 인준받고 따라서 자신의 이후 활동에 대한 명확한 평가 지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의 다변화를 꿈꾸자.

한민족, 한국가. 모두 허리띠를 조르고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라?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 그리고 이화라는 지성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의 일원화된 공식속에 모두를 집어넣어 동일화되기를 강요하는 동일성



공약

들어다 보기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립니다!!

학생회 권력의 독점화를 허물자!!

학생회 권력의 자위적인 배분을 막자

- 대중주체들이 형성해가는 위원회를 만들고 학생회에서 완전 독립이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소통의 활성화!!

1. 일상시기 캠페인 활성화

- 시기별 학생회 운영전략과 정책을 공개

2. 선거시기에만 국한되는 평가는 싫다

- 대중주체들의 학생회 사후인준 보장을 위한 학생총회 개최

3. 학생회에서 논의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대중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상설화

- 매달 이화 광장에 공개 회의 테이블 마련과 각 사안에 대한 질문 받기, 학생회 회의록 공개

4. 교직원, 교수님들과의 소통의 자율화를 꿈꾼다.

아줌마, 아저씨들과 함께 하는 용원잔치 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 교직원, 교수님들, 이화인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program제시

학생회

의 환상을 거부한다. 다양하게 분화된 우리의 의식속에서,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통합된 가치관을 가지고 한 것 발아래 모이기를 강제했던, 획일화된 학생회도 거부한다.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지반에 기반하여 형성되어 지는 것이어야 한다. 서로 적대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연대, 자치의 풍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변화된 구조의 여러가지 권력들이 상호간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간의 견제세력으로서 관계맺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소모임이 아니라,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가능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부여받은 권리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침해받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노출시켜야 하고, 이런 지점에 동의하는 각자가 주체적으로 권력을 형성하는 것, 이속에서 다양하게 형성되는 권력들과 상호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는 소통과 자치의 networking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학생회 거듭나기



적 목표들을 상호승인하는 과정(연대의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학원사회의 운영원리는 자율과 연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학생회는 무엇하지?

그렇다면, 이러한 다차원적인 세력화에 학생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학생회라는 구조의 틀속으로 모두가 편입해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생회는 다차원적인 주체들의 세력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한 소통과 자율의 풍조를 형성하도록 대중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다차원적인 세력화가 가능해졌을때, 이러한 권력을 내용적인 정점의 통합 담론으로 형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전위(Displacement)이다. 다양한 요소에서의 권력의 형성속에서의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속에서 자치와 자율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후적 효과로서, 학생회라는 통합담론으로 상호결합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간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실천적으로 '상호승인'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학생회는 현재적 상황에서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문제지점(정치적 목표)을 더욱 예각화하고 앞으로의 실천속에서 각각의 정치

축제를 시작하자!

모든이가 와글와글 모여서 웃고 떠들고 즐길 것이다.
처음 만난 어색함, 높은 무관심의 벽도 사라지고
높았던 사람은 낮아지고, 낮았던 사람은 높아지는 때
지금 축제를 시작하자

권위나 거창함이 무대에 오르면 부정과 부패의 속마음을 고백
할꺼야

향수를 실컷 뿌리고 고상한 척도 해보자.
등록금 영수증으로 명찰을 만들어 다는 건 어때?

선거는 표찍기가 아니다
11월의 이화,
이 열린 공간을
만오천이 함께
마음껏 비판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웃고 즐기는 축제로 만들자

제29대 해방이화 총학생회 선거에서 만오천 이화인과
유쾌한 전복의 경험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 이화의 심장을 1분에 70번쯤 뛰게 만들자 "



이화의 중심이나
왼쪽 가슴에
위치하지 않은 것 같은,
높고도 험준한 길을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은
이화의 심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1.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부"라던데...

이젠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한 이야기지만,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부라 말한다. 그렇다면, 별로 이화의 중심이나 왼쪽 가슴에 위치하지 않은 것 같은, 높고도 험준한 길을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은 이화의 심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이화 110주년 기념 중앙도서관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 전국 3위라는 이화의 이름에 걸맞는(?) 성적을 거둔 기관이다. 일찍이 80년대부터 구축된 검색 시스템, 그리고 거의 100만권에 육박하는 장서의 수는 타 대학의 도서관에 비해 이화의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 중앙도서관은 (그 훌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이화인의 손을 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 가까이하기엔 웬지 거리가 멀고,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그리 편하지가 않다. 장서의 구입이나 서가 배치, 그리고 검색 시스템 등은 이화인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조금만 이화인의 의견을 듣는다면 지금 있는 자료를 좀더 쉽게 우리 손에 접 수 있을텐데...

과연 이화의 심장, 이화 백주년 기념도서관은 1분에 60-80회씩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을까?

2. 도서관에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몇가지 일들

● 공동숙제를 하기 위해 친구들과 책상 하나 가득 자료를 벌여 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조금

씩 토론이 활발해지는데... 자연히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옆쪽 데스크에 앉아있던 사서의 통영스럽고 찢어질 듯한 한마디 "도서관에서 좀 조용히 할 수 없어요?" 이 많은 자료를 다 대출하거나 논문을 다 복사할 수도 없는데 우리 보고 어찌라구...

● 자료를 검색했는데 필요한 자료가 너무 많다. 손으로 일일이 쓰자니 너무 많고, 또 대출대에서 출력물을 하자니 정당 100원이나 하는 출력비가 만만치 않고... 저기 2층 로비의 전자정보실 CD-ROM검색대에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웬 레이저 프린터가 있나???

● 어느 새내기 이화인. 신학기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여전히 도서관을 이용하기는 어렵구나. 질문을 해도 자세히 대답해주는 사서는 별로 없고, 이 터미널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거야? 와, 저 비까번쩍한 컴퓨터... 근데 저 CD-ROM 검색대에서 어떤 자료를 찾을 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 간략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

● 우리 도서관에서 새로 구입하는 자료는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거야? 벌써 구입 신청을 한지도 두달이나 지났는데 언제 빌릴수 있는건지... 구입신청을 한 사람이 먼저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자료가 들어왔는지 한눈에 보여주면 안되나?

위의 일들은 이화인이라면 한번쯤 마음 속으로 생각해본 일 아니면 경험한 사건일 것이다. 새내기 때

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온 이화 중앙도서관에 대한 자랑, 그리고 고등학교 때와는 비교도 안되는 도서관의 규모에 기가 죽었다가도 한달 정도만 지나면 도서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수업과 숙제, 그리고 수업과 가장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야말로 학교 안의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완벽해야 할 곳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화에 바라는 여러 희망을 얘기할 때 도서관에 대

66
이제 중앙도서관에
도서관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와 자유를 달라고
손을 들자

한 요구사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은 이화인이 이용하기에 자료의 양이나 질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구입 신청을 하면 별 무리없이 구입해주고, 또 검색 시스템이 완비되어 카드목록함을 뒤지는 것보다 빨리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러나 도서관은 자료의 표지를 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원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의 내용으로 만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화의 중앙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는 자료의 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화인이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제 중앙도서관에 도서관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와 자유를 달라고 손을 들자.

3.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 할 우리의 바람들

① 도서관 한눈에 들여다보기 - "이화 백주년기념 중앙도서관 백서" 발간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조그마한 팸플렛 하나를 받는다. 자료의 위치, 간단한 검색시스템 사용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자료는 도서관을 한바퀴 휘 둘러보고 나면 초등학교 일학년짜리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장위치가 아니다.

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사소하게는 공중전화의 위치와 컴퓨터 대수까지도 알 수 있도록 갖가지 정보를 담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도서관 백서"를 발간한다. 물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이화인의 손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② 교수개인열람실을 공동세미나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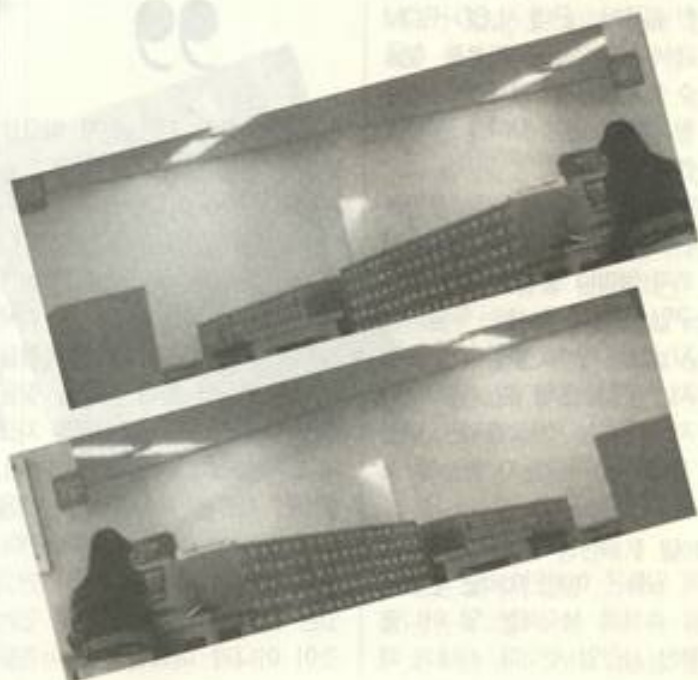
도서관의 뾰족한 서가 뒤에 가장 조용한 곳에 위치한 교수개인열람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독이나 공간이 부족한 도서관에 교수열람실이 전혀 이용도 되지 않는 데 굳건히 잠긴 모습은 씁쓸한 웃음만 자아낸다. 이런 교수용 개인열람실에 커다란 책상 하나와 의자 4-5개를 갖다 놓고 대출대에 신청하면 학회나 같은 과 친구들

이 세미나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사한 공간을 연출해보자.

③ 검색대 옆에 프린터를
나에게 필요한 수많은 자료들. 이런 자료를 필요할 때마다 다시 검색하고 연필에 적고... 5-6건의 적은 분량의 자료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논문 작성 등에 필요한 수많은 자료는 일일이 다시 찾는 것이 매우 귀찮고 힘든 일이다. 검색용 터미널 옆에 프린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자료만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④ 신간구입도서 안내게시판의 마련
2주 또는 한달에 한번씩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서관 2층 로비에 신간구입도서 안내게시판을 설치한다. 정리 과정에서 사서의 손을 거쳐 입력이 완료되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지만, 장비작업까지 자료가 정리되는 시간은 무려 2-3개월. 이 기간 동안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간구입도서 안내게시판이 있어서 열람신청을 하면 좋을 것이다.

⑤ 휴게공간의 확충 - 매점 앞의 휴게실 새단장하기
자유열람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꼭 누워서 쉬고 싶을만큼 피곤할 때가 있다. 5층 자유열람실에 있는 소파로는 휴식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매점 앞의 넓은 휴게실 공간에 소파를 설치하여 안락한 휴게공간을 만들어보자.



공 약

들어다 보기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립니다!!

이학의 중심부, 도서관을 개선하자!

1. 이화 백주년 기념 중앙도서관 백서 발간
2. 신간구입도서 안내게시판의 마련
3. 매점 앞 휴게실 새단장하기
4. 교수개인열람실을 공동세미나실로
5. 검색대 옆에 프린터를

환경파괴 그 허구적 미학을 넘어

기처럼 들릴 뿐이다.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핵발전소의 문제는 위험하지만 그래도 어쩌나라는 식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은 '지역이기주의의 희생'으로 매도되기 십상이다. 정권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물질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막상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규범(가업을 이어받는 다거나 가족적 전통을 지키는 것 등)은 정권의 자본의 야만성 앞에 갈갈히 찢겨져지고 만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환경파괴와 그 비용의 만중전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신문기사의 하나의 소재거리로 전락해 버렸다. 환경문제는 한 지역의 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서울의 대기오염, 계속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멈추지 않는 영광핵발전소,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여천공단의 환경파괴, 또한 일산과 부산등 쓰레기소각장의 문제들. 만나라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환경파괴의 문제는 우리 주위에도 도사리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와 NIMBYSM, 그리고 GREEN 상품?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지도 몇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환경은 다른 나라의 이야

기주의나 'NIMBYSM'이라는 영어 문구로써 처리되어 버린다. 전문가집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항상 신문과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아무런 실효성 없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이론일 뿐이다.

핵발전소와 관련된 다양한 외국의 실례가 소개되기도 한다. 핵발전소를 지었지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 채, 지역경제만 발전시킨다며, 스웨덴/독일/일본의 사례를 늘어놓으며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어야만 선진국대열에 들어설 수 있노라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쓰레기 소각장은 '너희들이 버린 것이니 너희들네에서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할 뿐이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국민들처럼 선진국식이 없는 우리 나라 국민들은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환경문제로 투쟁하는 우리 나라 국민은 자기지역만 생각하는, 자기 살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환경파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 혹은 능력이 없는 정부는 적당한 물질적 보상만을 강변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하

름 인쇄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해당기업의 환경보호 이미지를 떠올릴 뿐,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소비의 순환 속에서 환경보호의 모든 비용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제 환경은 원초적인 근원인 자본의 야만성이 'green'이라는 상품으로 그 외피를 바꾼 채, 또 다른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환경파괴 그 허구의 미학을 넘어

성장한계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근대이후 거의 무한적인 성장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었던 산업화논리를 비판하면서 지구생태계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에 절대적인 한계가

해남을 통해 국민적 동원·관리 이데올로기로서의 환경보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각종 언론매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GREEN상품들은 환경파괴의 부담을 소비자 순환 속에서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위기의 본질을 은폐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환경보호의 인식이 화백해져서도 아니고 환경관련제도와 정책들이 미비해서도 아니다. GREEN-ROUND라는 가치아래 제3세계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면에서는 각종 공해유발산업의 제3세계 국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나

우선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행동을 기획하여야 한다.

손들자유 하나, 환경문제를 민중생존권 투쟁으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시키면서 그들의 모순과 통제 불가능성을 은폐하는 것/ 단지 지역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직업병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문제 역시도 우리가 이익을 제기해야 한다.

손들자유 둘,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이를 상품화 시켜 그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반대한다.

66

지역개발이라는 정언명제 아래서 경쟁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지역환경의 문제가 현재의 환경파괴를 보다 근본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99

지역개발이라는 정언명제 아래서 경쟁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지역환경의 문제가 현재의 환경파괴를 보다 근본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환경은 놓여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미래의 대안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환경파괴로 인해 고통받고 그 모순의 중심에서 투쟁하는 있는 민중들과의 굳건한 연대, 그리고 또 다른 상품으로 환경을 이용하고 있는 자본의 야만성에 대한 폭로일 것이다.

환경은 더 이상 전문지식인 집단의 이론 속에서 묻힐 수 없다. 더군다나 자본의 야만성에 부화뇌동하는 정부의 행정정책으로써 해결될 수도 없다. 지금 우리는 환경의 보존과 인간의 생존보다는 이윤과 권력이



다. 전문적인 연구소에서 결코 판정이 떨어지지 아니라고 우기기에 급급하고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규제의 완화와 허가만을 남발하고 있다. 도대체...

모든 핵발전소와 모든 쓰레기와 모든 공단을 청와대와 대기업 지하에 건설하는 것은 어떨까?

이제는 賊反荷杖격으로 green상품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기에 혈안이 되어버렸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선전되는, 'green'이라는 낙인이 붙은 자본의 상품은 환경문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이미지와 함께 그 모든 비용이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 GREEN화발유, 한술의 기업이미지, 조선일보의 공기

있음을 지적하는 논리이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한적인 자본축적의 논리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이라는 점, 그리고 기술과 소비의 새로운 가치지향을 통하여 현존 사회관계와 가치관에 대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서 전문적인 논리 속에 파묻히고 있지만 자본의 야만성이 드러내고 있는 현실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지점에서의 투쟁의 사안으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총체적인 가치관의 재편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파괴와 비용의 민중전가를 명확히 폭로



우리시대 '발전'의 의미를 되돌아본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나(의 발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21세기 발전안'에

이의 있습니다!



'21세기 발전안'의 유형.

'발전'은 이 시대를 규정짓는 고유명사

다음 세기를 4년여 남겨놓은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은 아마도 '21세기'와 '발전'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국가, 기업, 학교등 저마다 '21세기 발전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이다.

이제 '21세기 발전안'은 개인과 단체를 망라하는 이 시대의 필수품이다. 뽀빠와 핸드폰은 이에 비하면 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국민이 '21세기'에는 기필코 발전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발전의 그 날까지 매진하고 있다. WTO나 OECD나 하면서 국가에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에 경기불황까지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기업간 무한경쟁을 돌고 나가기 위해서 온 국민이 새벽부터 다시 다음날 새벽까지 죽어라 일해도 모자란줄은 알지만, 이렇게 살았던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21세기가 된다고 뭔가 달라질 건 없다.

더욱이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너무나 발전속도를 빨리해서 문제라고 유식한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라에서 하는 말이 이번의 발전은 이제까지와는 또 다르단다. 앞으로의 발전은 온 국민이 공예도 그러던 '선진국'이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세계로 미래로' '한민족 세계경영' 정말 꿈만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곧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는 생각에 들떠있지만 하기에는 나와 나의 주변이 도대체 영화속에 나오는 선진국민 같지가 않다. 오히려 살아가는게 예년보다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발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전의 상황에서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발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후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할까. 나라는 계속 발전하는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직장일고 건강일고

전세집에서 쫓겨나고 애들 과외비 못벌어 속상하고... 왜 계속 후퇴하는 것만 같을까. 불안하다. 알고보니 이런 낙담리를 나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어떠한 단어는 구체적인 사회속에서는 반드시 그 단어의 온전한 의미로만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귀뜸해주었다. 마치 지금 '개혁'이라는 단어가 모든 말을 수식하고 있지만 아무도 더이상 개혁을 그 자체로 진보적이거나 선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어쩌면 후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대한민국 드디어 선진국 사교클럽에 가입.

- 와! 만세!

그러나 거꾸로 가는 선진국

나라에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다. 보란듯이 세계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선진국들만 모인다는

'OECD'에 가입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남의 동네 볼 구경 가듯이 우루루 물러가는 틈에 끼여서 뺏기고 좋아했던 OECD가입. 그런데 실상 가입이 확정되고 나니 OECD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고 여기에 가입하면 뭐가 좋을까를 나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신문에 보니 OECD는 굳이 기능을 따진다면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회원국간의 관심 분야에 대해 정부차원의 협의를 하기 위한 클럽 형태의 모임이란단다. 그런데 우수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는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많더니 이제는 OECD에 가입했으니 더욱 노력할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내주면서 철저히 '가입비'를 청기는 기구란다. 한 예로 신규 회원국에 대한 개방확대의 요구는 결국 시장을 확보하려는 기존 가맹국들의 참예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입으로 한식구가 되었다는 선언에 못지 않게 새 식구의 시장을 어서 열게 하려는 강대국의 의도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벌써부터 OECD 가입이 한국경제의 시련과 기회의 갈림길이라고 하면서 개방여파를 감당 못하면 '멕시코형'으로 망할 우려가 있지만 기업 체질 개선과 세계화를 앞당기는 데는 유리하다고 말하는등 가입 이후 국내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실 정부가 가입의 실

주1) 한겨레신문 10월 12일자 참조.

익이라고 홍보하는 사형들은 추상적인 것이 많고 부담으로 설명하는 문제들은 한결 구체적이다. **

또한 가장 중요한 가입의 기준으로 시장개방정도와 자본이동과 투자자유화 정도와 노동정책 개혁정도를 들 수 있는데 다수 회원국들은 노동정책의 개혁정도 같은 경우 기준에 상당히 미흡하나 한국을 받아들이는 동료간의 압력을 통해 개혁의 진전 여부를 감시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단다. 그런데 압살하게도 정부는 이제까지 노사화합이다 뭐다 하면서 OECD 기준에 맞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선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 가입이 확정되자 별다른 진전 없이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아물든 이제 인종까지 받았으니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3.거꾸로 가는 선진국- 국가 경제는 지금 위기다!

국가 발전의 일등공신 '독점 재벌'-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이윤 착취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나라에서는 매일같이 국가 경제위기라고 외쳐대고 있고 실제로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주가 하락, 수출부진, 동등 전문적인 경제용어와 수치들을 제시하면서 나라의 경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국민들에게 애써 인 지시키고 있다.

선진국으로 들어선 이 사정 국가는 어느 때보다





서 임금은 계속 억제하려는 논리는 모순이며, 그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통전담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⁴²⁾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건 다 높은 채로 두고 유독 임금 동결등 고용비용만을 낮추려고 하고 있으니 아직도 가장 손쉽게 화생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볼 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4.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미래를 팔아 현실을 사는 것은 현실의 일상적인 모습이며, 대중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이러한 지배 담론은 역사 속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쟁의 참상을 듣고 국가 재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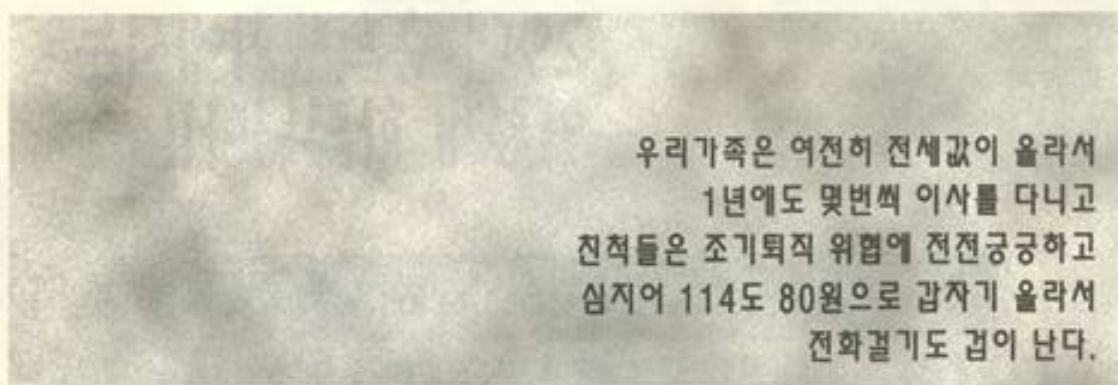
한길로 매진할 때도 그랬고, 모든 국민을 해가 밝기도 전에 새벽종을 땡땡 울리며 일터로 몰아대는 '잘살아보세', 조금만 아껴쓰면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허리띠 졸라매기'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 이르러서는 행복한 현재를 갖기에는 현대인에게 아직도 시련이 모자라다는 '고통분담론', 2020년 G-7국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장미빛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더이상 분배지상주의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이루어 세계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노사 화합주의',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대중동원 이데올로기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담론으로 바뀔뿐 놀랍도록 일관되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전담하며, 더 달라고 투덜대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지금의 경제 선진국처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주2) 한겨레 신문 10월 17일자 시평 인용

도 위기란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라고 진단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는 고비용에 착목하고 타개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등 높은 고용비용에 착목하면서 타개책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변형시간근로제 등 기업의 유연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으로 맞추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조기퇴직, 명예퇴직, 인력재배치 등 기업의 대량감원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비용에는 임금뿐만이 아니라 금리 땅값 물류비, 정부규제 비용등이 있다.

선진국이란 대체로 이 5고 중 네가지 비용이 낮은 나라이지만 임금만은 가장 높은 나라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은 합리적으로 낮춰 나가며 임금과 소득은 계속 높아지는 과정이다. 소득의 성장은 바리엔



우리가족은 여전히 전세값이 올라서
1년에도 몇번씩 이사를 다니고
친척들은 조기퇴직 위험에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114도 80원으로 갑자기 올라서
전화걸기도 겁이 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의 요구에 매우 충실하다. 40대 사망률 세계1위, 산재 사고율 세계 수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1위, 고용불안, 여성 취업률, 국가 복지 세계 최하위의 나라에서 이러한 현재의 문제에 침을 뱉으며 욕하는 사람들을 뺑뺑이 욕하며 오늘도 전과 컨디션을 먹으며,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위험스럽게 그러나 찢리지 않기위해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묵묵히 순종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제 또다시 그 개념도 모호한 국가 경쟁력을 10%높여야 한다면서 국민들을 덕담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 방안'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이 기업 운용과 이윤축적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지원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대기업 상업차관 허용등 규제완화와 재벌들의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후퇴및 현재 진행중인 노동법 개정에 있어 사용자측 입장을 대폭 수용하여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천명등 국가경쟁력 강화는 곧 재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5. 우리나라 선진국 맞아?

국가의 수량적인 발전과 국가 구성원인 국민 개인의 발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해 보았다. 국가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으로 발전할 지 몰라도 그 이면에 조기 기업의

실패기 경영을 실직한 30대의 자살에 관한 기사가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또 다른 면에는 병주고 약주듯이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준다거나 명예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거나 출퇴근 사고나 심장마비도 산재로 인정한다는 등의 하나도 위안이 되지 않는 기사들이 실리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회사에서 쫓기는 사람들이 많고 회사에 젊음을 저당잡힌채 묵묵히 일하다가 과로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끔찍한 기사일 뿐이다. '젊음을 주십시오,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해 드립니다.'라는 미심쩍은 표어에 나의 젊음을 걸어야 하는 것일까?

국가는 월드컵도 유치하고 선진국 사교클럽에도 가입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인데 우리가족은 여전히 전세값이 올라서 1년에도 몇번씩 이사를 다니고 친척들은 조기퇴직 위험에 전전긍긍하며 버스요금은 매일같이 올라서 걸어야 할 판이고 심지어 그동안 유일하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던 114도 80원으로 갑자기 올라서 전화걸기도 겁이 난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수 없다고 했던가. 국가에서는 재벌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주면서 왜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인색할까. 그동안 나와 내 주변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최소한의 권리마저 후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단다.

대구나 OECD의 기본이념이 다원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및 인권존중이라는데 허탈한 웃음을 지어본다.

들여다 보기 하나

29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게 하립니다!!

저항과 연대의 시작

정치활동과 민중연대

- 1) 노조와 함께 하는 기업 설명회의 상설화
- 2) 정치활동 공간 보장 : 선전물 게시, 플랭카드 부착의 자유 보장
- 3) 수요정치 광장의 상설화
- 4) pc통신내 선전물 게시
- 5) 지역으로 열린 대학 마련



**“지금보다 백 배는 더 좋은 세상이 옵니다.
손끝 하나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984년, 데몰리션 맨, 넷

조지 오웰이 그린 '1984년'은 '빅 브라더'의 세계이다. 어느 곳이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인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한다. 물론 모든 일은 곳곳에 연결된 관을 통해 서류(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주어진 서류(정보) 이외에는 일 수도 없고 알리고 해서도 안된다. 모니터를 통해 빅 브라더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화 '데몰리션 맨'에서는 20세기의 인간인 주인공이 미래인간과의 대화를 나누다가 욕을 한다. 이 때 '당신은 욕을 금하는 법을 어겼으니 벌금 얼마를 부과한다'는 컴퓨터 음성이 나온다.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의 생활 하나하나가 통제 받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드라 블록 주연의 '넷'란 영화에서 주인공 안젤라는 극비의 데이터베이스를 뚫을 수 있는 모짜르트 밴드 프로그램을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옴모에 휘말리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 컴퓨터 마피아는 이름, 나이, 신용카드 등등 개인정보를 삭제해버린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형선고이다.

손끝 하나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앞의 것들은 단지 미래사회를 우울하게 조망하는 영화적 상상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컴퓨터와 정보기술이 파고들고 있다. 이미 '타임(TIME)'은 1984년에 컴퓨터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면서 정보화를 세계의 '총아'로 예감하였다.

학생증과 결합된 현금카드처럼 돈은 정보로 기록되어 은행계좌에 있고, 나에 대한 기록은 행정전산망에 있다. 인터넷을 모르면 바보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다.

과연 어느 대기업의 선전대로 손끝 하나만으로 누구나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보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을까. 미 부통령 앨 고어의 말대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발전을 통해 현대의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펜티엄에 고속모뎀까지 갖추고 웹을 이용해 전세계의 원하는 정보에 마음껏 접근하는 경제적



수준의 사람과 하이텔 단말기를 전화국에서 대며 받아 전화비도 아까워서 어쩌다 한 번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보화사회라고 해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권력을 직시하라

따라서 정보화사회는 더 이상 장미빛 미래의 약속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지금의 사회체제를 재생산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정보가 그만큼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불평등체제 재생산을 위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현실적인 억압을 가하는 권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정보화가 행정상의,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효과도 낳겠지만 중심은 역시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공간을 통제하려는 사람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아왔다. 일례로 작년 한국통신 사태시 정부는 노조의 통신 기사편을 무단으로 검열, 삭제하였으며 올 여름 한중련 사태를 기회로 한중련의 CUG또한 폐쇄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총경비 2735억원을 들여 98년 발급을 목표로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가 문제이다. 구시대적인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기는커녕 확대 개편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전자화된 감시체제를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정보유출 가능성을 더욱 조장한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개인정보를 독점하겠다는 권력의 발상이다. 더군다나 공안전산망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정보공개법」의 추진과정에서 경찰, 안기부 등의 공안기관이 제외된 현실에서 안기부로 하여금 보안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맡기려는 것은 정보와 권력의 함수관계를 뻔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독점과 검열에 대한 이의제기 - 손들자유!

모든 행정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의 입법과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안기부, 경찰 등 사법, 행정 관련 정보의 접근을 봉쇄하려는 정권에 의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또한, 정보는 검열 받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과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권력의 형태로 마음대로 정보를 조작하고 유출하는 것에 반대함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관 및 시설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 본인에게 정보의 내용과 목적에 관한 통보가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열람 및 공개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통신공간을 진보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진보적인 통신주체들간의 연대와, 재반 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그 필요조건으로 할 것이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이윤추구와 권력구축의 수단이 되고 있는 지금, 진정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손들자유 별점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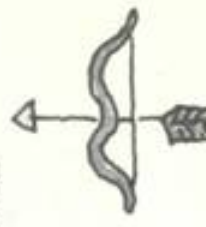
(3.21~4.20)
양자리

어제도 당신과 운은 건재합니다. 계획한 세팅 놓고 실천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감을 갖는 것. 감정의 산란을 조심하세요. 행복한 만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23~8.22)
사자자리

앞면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훌륭한 계획들을 행동을 옮기세요. 그리고 만을 만한 동료나 선택과 협력여건 등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11.23~12.21)
사수자리

음악, 그림, 영화, 연극 등의 문화생활을 즐기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자적인 재능이 높아지는 시기로, 그 재능을 더욱 진작해 발휘하기 위해 노력도 또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노력도 생활을 바꾸어 보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를 찾아보세요.



(4.21~5.21)
황소자리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조조하지는 않는지요? 해를 운동이나 취미 생활로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세요. 온화함과 부드러운 성격이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사랑의 행운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항상 유익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재미있는 '손들자유'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8.23~9.23)
처녀자리

궁극적인 앞에는 운이 따릅니다. 당신의 운을 따르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과 행동입니다. '손들자유'와 함께 손을 들어보세요. 멋진 만남이 기다릴거예요.



(12.22~1.20)
산양자리

올해의 마지막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받아들이세요. 당신과 관련된 인간 관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5.22~6.21)
쌍둥이자리

취미로 몰려 안전관리의 폭을 넓혀 볼까요. 새로운 무엇을 배우기도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생활을 하는 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당신의 작은 불만들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9.24~10.23)
천칭자리

고집스러워하는 시기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집스러운 마음이 고요로 드러납니다. 고집부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을 줄이려면 적당한 타협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차이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1~2.18)
물병자리

적극적인 행동력이 당신과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서적인 만남은 물론 공적인 만남과 장소에서도 당당할 정도로 격조있게 행동해 보세요. 그것이 손들자유의 모습입니다.



(6.22~7.22)
게자리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는 시기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새로운 만남들에 열정이 참여하도록 하세요. 분명 당신은 그런 모임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손들자유'와 함께 선제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10.24~11.22)
전갈자리

지금 시국은 선행과 뒷면에게 치우도록 노력하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이상으로 당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면에 없는 사람은 오히려 치나만 극적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들자유'와 함께 '손들자유'의 만남은 어떨까요?



(2.19~3.20)
물고기자리

현관적으로 운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해에 대한 당신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이해를 끌어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손들자유'와 함께!